국어문법

V20190905-193

평가원, 교육청,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모음집

A001

201611수능1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 선생님, 다음 두 문장을 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2) 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선생님 : (1)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음"을 뜻하고, (2)의 '가깝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함"을 뜻한단다. 이는 본래 ㉠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이 ㉡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학생 :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로군요.

선생님 :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다의어란다.

	㉠	㉡
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②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힘든 만큼 기쁨이 큰 법이다.
③	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	도로 폭이 넓어서 좋다.
④	내 좁은 소견을 말씀드렸다.	마음이 좁아서는 곤란하다.
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작다.

A002

201611수능12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① '꽂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② '몫이[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③ '비옷[비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않고[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읊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A003

201611수능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흗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ᄆᆞᅀᆞᆯ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중세 국어] 自然히 ᄆᆞᅀᆞ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ᄆᆞᅀᆞ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 ⓐ와 ⓑ를 보니, (가)_____.

① 중세 국어 '열다', '흗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흗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흗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흗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흗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흗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흗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흗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흗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흗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A004~A005

201611수능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녹다'의 어근 '녹-'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녹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녹이다'의 어간 '녹이-'는 '녹다'의 어간 '녹-'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눕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A004

201611수능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④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A005

201611수능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③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A007

201703서울12

〈보기〉의 ㉠~㉤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의미	예문
살다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바람 때문에 불씨가 다시 ㉠ 살았다.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	이 한 구절로 글이 ㉡ 살았다.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그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 살았다.
놓다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그는 잠시 일손을 ㉣ 놓았다.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	형은 책을 책상 위에 ㉤ 놓았다.

① ㉠은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군.
② ㉡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③ ㉢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④ ㉣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⑤ ㉤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군.

A008

201703서울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보기

채 「의존 명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체 「의존 명사」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째 「접사」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① 사과를 껍질째로 먹었다.
② 나는 앉은 체로 잠이 들었다.
③ 그녀는 혼자 똑똑한 채를 한다.
④ 사나운 멧돼지를 산 째로 잡았다.
⑤ 곰이 다가오자 그는 죽은 채를 했다.

A006

201703서울11

〈보기〉의 ⓐ, ⓑ가 사용된 예를 ㉠~㉤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선생님 :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것들 중 ⓐ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 '-(으)ㅁ', '-기'와 ⓑ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 '-기'가 있어요. 전자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전자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 세상은 홀로 ㉠ 살기가 어렵다.
- 형은 충분히 ㉡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날씨가 더워 시원한 ㉢ 얼음이 필요하다.
- 우리에게 건전한 ㉣ 놀이 문화가 필요하다.
- 이곳은 풍경이 매우 ㉤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A009~A010

201703서울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한 형태소 내의 모음들을 살펴보면 'ㅏ, ㅗ, ㆍ' 등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ㅜ, ㅡ' 등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렸다. 중성 모음 'ㅣ'는 양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고, 음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때,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의 첫 모음은 그에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성질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그에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ᄋᆞᆯ/을, ᄅᆞᆯ/를' 중 하나가 선택되었고, '-ᄋᆞᆫ/-은', '-옴/-움', ㉠ '-아/-어'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 다만, 조사 '도', '와/과'나 어미 '-고', '-더-' 등은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모음 조화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ㆍ'의 소실과 관계가 있다.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ㆍ'가 소실되면서 주로 'ㅡ'에 합류하였다. 첫째 음절에서의 'ㆍ'는 여전히 양성 모음이었으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ㆍ' 대신 음성 모음인 'ㅡ'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체언에 연결되는 'ᄋᆞᆫ/은', 'ᄋᆞᆯ/을', 'ᄋᆡ/의' 등의 조사는 점차 '은', '을', '의' 등으로 통일되었고, 모음 조화를 지키던 '사ᄉᆞᆷ'과 같은 단어들은 '사슴'과 같이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의 'ㆍ'가 주로 'ㅏ'에 합류하면서 'ㆍ'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국어의 모음 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음 조화가 약화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촐랑촐랑',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나 ㉡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009

201703서울14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국어		현대 국어	
	용언 어간	활용형	용언 어간	활용형
①	알-	아라	알-	알아
②	먹-	머거	먹-	먹어
③	ᄭᅵ오-	ᄭᅵ와	깨우-	깨워
④	ᄡᅳ-	ᄡᅥ	쓰-	써
⑤	ᄀᆞᄃᆞᆨᄒᆞ-	ᄀᆞᄃᆞᆨᄒᆞ야	가득하-	가득하여

A010

201703서울15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겨스레 소옴 둔 **오ᄉᆞᆯ** 닙디 아니 ᄒᆞ고 녀르메 서늘ᄒᆞᆫ ᄃᆡ 가디 아니 ᄒᆞ며 **ᄒᆞᄅᆞ** ᄡᆞᆯ 두 호ᄇᆞ로ᄡᅥ **쥭을** ᄆᆡᆼᄀᆞᆯ오 소곰과 **ᄂᆞᄆᆞᆯᄒᆞᆯ** 먹디 아니 **ᄒᆞ더라**

– 내훈 (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솜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니하며 하루 쌀 두 홉으로써 죽을 만들고 소금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쟝과 소금과 계ᄌᆞ ᄀᆞᄅᆞ와 **파과** 마ᄂᆞᆯ과 부칙와 기름과 댓무우과 외와 가지 등 여러가지 **ᄂᆞ믈**과 ᄃᆞᆱᄀᆡ 알과

– 박통사언해 (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금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당근과 오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①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ᄒᆞᄅᆞ'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②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ᄉᆞᆯ'과 '쥭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③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ᄒᆞ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④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⑤ 둘째 음절의 'ㆍ'가 'ㅡ'로 변하였음을 (가)의 'ᄂᆞᄆᆞᆯ'과 (나)의 'ᄂᆞ믈'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A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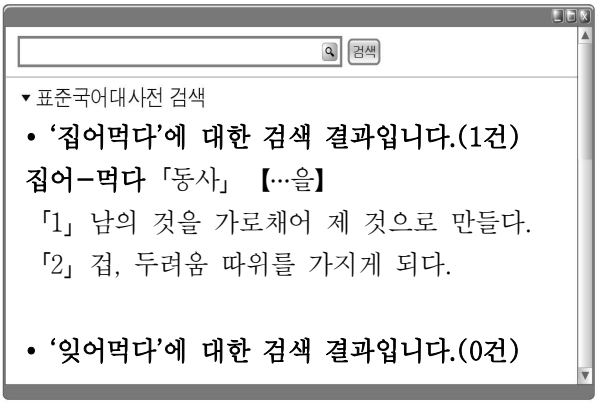
201704경기12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

유 형	특 징
본용언 + 본용언	•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한다. •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 반드시 띄어 쓴다.
본용언 + 보조 용언	• 앞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고, 뒤의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합성 동사	• 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 반드시 붙여 쓴다.

(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



보기

- 온순했던 청년들은 지레 겁을 ㉠ 집어먹었다.
-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 잊어 먹었다.
-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 집어먹었다.
-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 집어먹었다.
- 그들은 서로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 잊어먹었다.

① ㉠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이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② ㉡은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③ ㉢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인 '그는'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⑤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쓴 것을 허용한 것이겠군.

A013

201704경기13

〈보기〉는 '학습 활동'에 대해 짝토론을 한 것이다. ㉠~㉢에 알맞은 말을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학습 활동] 다음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자.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

보기

학생 1: 어제 보았던 거꾸로 수업 동영상 강의에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했지?
학생 2: 그래. 그리고 어떤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려면 그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먼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부터 찾아보자. 음……. '알려 줬다'와 '받았음' 이렇게 두 개인가?
학생 1: 아니야. '아끼던'도 서술 기능이 있잖아.
학생 2: 그렇구나. 그러면 그중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 줬다'이고, 그것의 주어는 (㉠)이겠다.
학생 1: 맞아. 그럼 '받았음'의 주어는 (㉡)이겠지?
학생 2: 응. 명사절이 문장 전체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안겨 있는 거지.
학생 1: 명사절 외에 관형절도 있잖아. 그러면 이 관형절의 주어는 (㉢)이겠다.
학생 2: 그래. 국어의 안은문장은 이렇게 여러 개의 안긴문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	㉡	㉢
①	그녀가	제자가	그가
②	그녀가	그가	제자가
③	그가	그녀가	제자가
④	그가	제자가	그녀가
⑤	제자가	그녀가	그가

A014~A015

201704경기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에 의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도 주로 '-시-'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ᄉᆞᆸ-'을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며, '-ᄉᆞᆸ-'은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ᄉᆞᆸ-, -ᄌᆞᆸ-, -ᄉᆞᅀᆞᆸ-, -ᄉᆞᅘᆞᆸ-, -ᄌᆞᅘᆞᆸ-'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표현에 의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A014

201704경기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仁義之兵(인의지병)을 遼左(요좌)ㅣ ㉠ 깃ᄉᆞᄫᆞ니
  [현대어 풀이] 인의의 군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 聖孫(성손)이 ㉡ 一怒(일노)ᄒᆞ시니 六百年(육백년) 天下(천하)ㅣ 洛陽(낙양)애 ㉢올ᄆᆞ니이다
  [현대어 풀이] 성손(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육백 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옮아간 것입니다.
- 聖宗(성종)ᄋᆞᆯ ㉣ 뫼셔 九泉(구천)에 가려 하시니
  [현대어 풀이]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하ᄂᆞᆯ히 駙馬(부마) 달애샤 두 孔雀(공작)일 ㉤ 그리시니이다
  [현대어 풀이] 하늘이 부마를 달래시어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①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ᅀᆞᆸ-'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聖孫(성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은 선어말 어미 '-시-'와 '-이-'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의 주체와 청자인 상대방을 모두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015

201704경기15

윗글과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보기1

주체 높임에는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보기2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직접 높임	간접 높임		
①	×	○	○	높임
②	×	○	×	낮춤
③	○	×	○	높임
④	×	○	×	낮춤
⑤	○	×	○	낮춤

A011

201704경기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

보기2

- 나는 벽에 ㉠ 붙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 낱낱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 밭이랑을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 홑이불을 덮고 잤다.

① ㉠의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낱'의 받침 'ㅌ'은 [ㅊ]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③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밭'의 'ㅌ'은 [ㅊ]으로 발음된다.

④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은 [ㅊ]으로 발음된다.

⑤ ㉤의 '홑-'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홑-'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A017~A018

201705전북12~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는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로 정의된다. 즉 '봄빛이 매우 푸르다.'에서 '봄빛'과 '매우'처럼 자립할 수 있는 말이 단어가 된다. '푸르-'와 '-다'는 각각으로는 자립하지 못하고 서로 어울려야 비로소 자립할 수 있으므로 '푸르다'가 하나의 단어가 된다. 단어의 정의를 이처럼 자립성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조사를 단어로 보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단어를 자립할 수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한다.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이다. '봄빛이 매우 푸르다.'에서 '봄', '빛', '이', '매우', '푸르-', '-다'는 모두 형태소이다. 단어는 '매우'처럼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푸르다'처럼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다. 이때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요소를 접사라 한다.

단어 중에서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 하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다만 동사와 형용사처럼 어미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어간이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비록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어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복합어가 아닌 단일어로 분류한다. 복합어는 다시 '봄빛'처럼 '어근+어근'으로 된 합성어와 '부채질'처럼 '어근+접사'로 된 파생어로 구분한다.

합성어에는 합성 명사, 합성 형용사, 합성 동사, 합성 부사 등이 있다. 합성어들은 합성 명사만 하더라도 '명사+명사'로 이루어진 것, '동사 어간+명사'로 이루어진 것, '관형사+명사'로 이루어진 것 등 그 구성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합성 부사의 경우에는 '길이길이', '생글생글'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 합성어가 많다.

어근에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는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접미사로 나뉜다. 접두사는 보통 한 가지 품사의 어근하고만 결합하지만, '겉잡다', '겉멋'에서 쓰이는 '겉-'처럼 두 가지 이상의 품사의 어근과 결합하기도 한다. 한편 접미사는 접두사와 달리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말썽꾸러기'의 '-꾸러기'처럼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사도 있지만, '공부하다'의 '-하다'처럼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있는 것이다.

A017

201705전북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맨살에 바람이 스친다.
㉡ 노랗게 핀 꽃봉오리가 탐스럽다.
㉢ 큰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였다.
㉣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① ㉠의 '바람'은 ㉡의 '꽃봉오리'와 달리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군.
② ㉠의 '스친다'와 ㉡의 '탐스럽다'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가 결합한 복합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의 '이'와 ㉢의 '을'은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단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과 ㉣을 보니 '헛-'은 두 가지 이상의 품사의 어근과 결합하는 접두사라고 할 수 있겠군.
⑤ ㉢의 '큰아버지'와 ㉣의 '강물'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군.

A018

201705전북13

윗글을 이해한 학생들의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새해'는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
② '덮밥'은 동사의 어간과 명사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
③ '편들다'는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 동사이다.
④ '살랑살랑'은 부사가 반복하여 이루어진 합성 부사이다.
⑤ '남다르다'는 명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합성 형용사이다.

A019

201705전북14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 중에서 교체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ㄱ.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
ㄴ.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
ㄷ. 유음화: 'ㄴ'이 유음인 'ㄹ'의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발음되는 현상.
ㄹ.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ㅁ.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① '솜이불'이 [솜니불]로 발음되는 것은 'ㄴ'과 관련이 있다.
② '물난리'가 [물랄리]로 발음되는 것은 'ㄷ'과 관련이 있다.
③ '해돋이'가 [해도지]로 발음되는 것은 'ㄹ'과 관련이 있다.
④ '부엌문'이 [부엉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ㄱ', 'ㄴ'과 관련이 있다.
⑤ '낮잠'이 [낟짬]으로 발음되는 것은 'ㄱ', 'ㅁ'과 관련이 있다.

A020

201705전북1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ㄱ~ㅁ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절'이란, 어떤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체가 '주어+서술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절의 종류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등이 있다. 이러한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절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ㄱ.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ㄴ. 그가 소리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ㄷ. 이 책은 활자가 너무 작다.
ㄹ. 청소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ㅁ. 철수는 나에게 영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① ㄱ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안긴문장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② ㄴ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안긴문장의 주어는 '소리도'이다.
③ ㄷ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책은'이다.
④ ㄹ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으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청소년들이'이다.
⑤ ㅁ은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A016

201705전북11

〈보기〉의 탐구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단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 표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다 근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의 이어 적기 방식이 단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 현대 국어의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과도기적 표기인 거듭 적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근대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 거듭 적기로 표기된 사례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탐구 자료]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기픈	기픈/깊은/깊픈	깊은
말ᄊᆞ미	말ᄊᆞ미/말ᄉᆞᆷ이/말ᄉᆞᆷ미	말씀이
들	( )	뜻을

① 중세 국어 '기픈'은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이어 적기를 한 것이겠군.

② 중세 국어 '말ᄊᆞ미'는 받침이 있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하여 단어의 기본 형태를 밝혀 표기한 것이겠군.

③ 중세 국어 'ᄠᅳ들'은 근대 국어에서 'ᄠᅳ들 / ᄠᅳᆫ을 / ᄠᅳᆫ들'로 표기할 수 있었겠군.

④ 근대 국어 '깊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단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를 사용한 것이겠군.

⑤ 근대 국어 '말ᄉᆞᆷ미'는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표기에 해당하겠군.

A021~A022

201706평가원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하는데,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의어와 하의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를테면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 하의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의어가 된다. 그런데 '구기'의 하의어에는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등이 더 있다. 이때 상의어인 '구기'에 대해 하의어 '축구', '야구', '농구' 등은 같은 계층에 있어 이들을 상의어 '구기'의 공하의어라 하며, 이들 공하의어 사이에는 ㉠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곧 어떤 구기가 '축구'이면서 동시에 '야구'나 '농구'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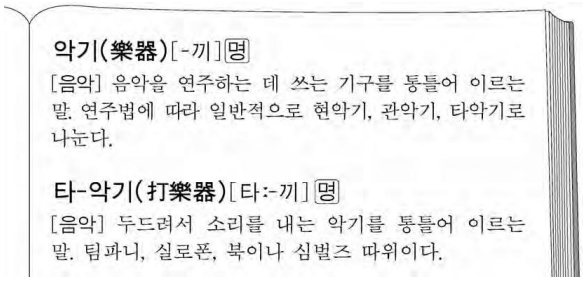
한편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일례로 어떤 새가 '장끼'이면 그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꿩'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꿩'이라 해서 그것이 꼭 '장끼'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의어는 하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이를 '[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 자질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져, 결국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구기'의 공하의어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꿩'의 공하의어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장끼'와 '까투리' 둘뿐이다. '구기'의 공하의어인 '축구',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장끼', '까투리'는 '꿩'의 공하의어로서 비양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장끼'와 '까투리'의 경우, '장끼'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 그 공하의어들은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021

201706평가원11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악기(樂器)[-끼]명
[음악]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눈다.

타-악기(打樂器)[타:-끼]명
[음악]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팀파니, 실로폰, 북이나 심벌즈 따위이다.

①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겠군.
②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이므로 [두드림]을 의미 자질 중 하나로 갖겠군.
③ '기구'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겠군.
④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이지만, '기구'의 공하의어는 아니겠군.
⑤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이므로 모두 '악기'의 상의어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겠군.

A022

201706평가원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여름에 고향을 출발한 그가 마침내 ⓑ 북극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나는 다급해졌다. 지구의 양극 중 ⓒ 남극에는 내가 먼저 가야 했다. 남극 대륙은 ⓓ 계절이 여름이어도 내 고향의 ⓔ 겨울만큼 바람이 찼다. 남극 대륙에서 나를 위로해 준 것은 썰매를 끄는 ⓕ 개들과 귀여운 몸짓을 하는 ⓖ 펭귄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 갈매기들뿐이었다.

①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A023

201706평가원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맡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① 'ᄒᆞᆱ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③ '부엌문[부엉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④ '얹지[언찌]'와 '묽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⑤ '넓네[널레]'와 '밟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A024

201706평가원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A025

201706평가원15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1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 샹녜 쓰ᄂᆞᆫ 힛 일후미라(일훔+이라)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 生佛은 사라 겨신 부톄시니라(부텨+ㅣ시니라)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이시다)

보기2

- 齒ᄂᆞᆫ ㉮_____ (치는 이이다)
- 所ᄂᆞᆫ ㉯_____ (소는 바이다)
- 樓는 ㉰_____ (누는 다락이다)

	㉮	㉯	㉰
①	니이라	바이라	다락라
②	니라	배라	다락ㅣ라
③	니이라	바라	다락ㅣ라
④	니라	배라	다라기라
⑤	니ㅣ라	바이라	다라기라

A027~A028

201707사관학교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심리가 주된 동인이 되어 만들어지는 말 중의 하나가 '줄임말'이다. '줄임말'은 본말보다 음절수가 하나 이상 줄어들어 형성된 언어 형식으로, 형식적인 감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몇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ㄱ. 가지다 → 갖다, 견디어 → 견뎌, 아이 → 애
ㄴ. 노동조합 → 노조, 몰래 카메라 → 몰카, 한국은행 → 한은
ㄷ. 서양복 → 양복, 자외광선 → 자외선, 거스름돈 → 거스름
ㄹ. 태권도 + 에어로빅 → 태권로빅, 자동차 + 가계부 → 차계부

ㄱ은 음운론적인 과정을 통해 음절수가 감소된 경우이다. ㉠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준말'의 예들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음운론적 차원에서 음절이 줄어든 준말은 음운이 '탈락'되거나 '축약'되면서 형성된다. 전자는 모음 중 한 모음이 생략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마음 → 맘', '디디고 → 딛고'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두 모음이 결합하면서 두 모음과는 다른 제3의 모음으로 바뀜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사나이 → 사내', '조심스러이 → 조심스레'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ㄴ, ㄷ, ㄹ은 형식적인 감소 과정이 음운론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예들이다. ㄴ은 단어와 단어가 연쇄되어 있을 때, 각각의 첫 음절만을 연결해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두자어(頭字語)'라고 한다. 두자어는 본말이 구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고유 명칭처럼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다. ㄷ은 복합어에서 음절이나 단어를 생략해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절단어(切斷語)'라고 한다. 절단어는 보통 첫 부분이나 끝 부분이 생략되어 만들어지지만 간혹 가운데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ㄹ은 둘 이상의 단어에서 각각의 일부분을 잘라 내고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혼성어(混成語)'라고 한다. 혼성어는 절단과 합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두 단어가 갖는 각각의 특성을 모두 가진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027

201707사관학교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f에서 '줄임말'의 유형이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기

a. '슈퍼'는 원래 '슈퍼마켓'에서 온 말이지.
b. '어제저녁'은 '엊저녁'으로 줄여 쓸 수 있어.
c. '고속철도'를 간단하게 '고속철'이라고도 해.
d. '불백'은 '불고기 백반'이라는 말이 준 거야.
e. '라면과 떡볶이'를 합치면 내가 좋아하는 '라볶이'.
f. '선거 관리 위원회'를 줄여서 '선관위'라고도 하지.

① a, b
② a, c
③ b, e
④ a, c, e
⑤ b, d, f

A028

201707사관학교13

다음은 ㉠의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준말'에 적용된 항목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음.
(나)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음.
(다) 'ㅏ, ㅗ, ㅜ,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이-'가 앞 음절에 붙어 줄여지기도 하고 뒤 음절에 붙어 줄여지기도 함.
(라)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음.
(마)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음.

① '저리로'는 (가)를 적용하여 '절로'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② '보이다'는 (나)를 적용하여 '뵈다'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③ '누이어'는 (다)를 적용하여 '누여'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④ '점잖지 않다'는 (라)를 적용하여 '점잖찮다'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⑤ '정결하다'는 (마)를 적용하여 '정결타'로 줄여 쓸 수 있겠군.

A029

201707사관학교14

〈보기〉에서 제시한 ㄱ~ㅁ의 '복수 표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ㄱ. • 너희는 학교로 모여라.
  • 너희들은 학교로 모여라.
ㄴ. • 친구들이 병들을 모았다.
  • *음료수 세 병들이 깨졌다.
ㄷ. • *거기들에서 잠시 동안 기다려라.
  • 여기들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라.
ㄹ. • *세종대왕들이 한글을 창제했다.
  • 우리 학교는 세종대왕들을 길러내고 있다.
ㅁ. • *일과 이를 더하면 삼들이다.
  • *지고 이기고는 둘째들 치고 경기에 집중하자.

*는 비문임.

① ㄱ : 복수의 의미를 갖는 2인칭 대명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② ㄴ : 명사가 단위로 쓰인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군.
③ ㄷ : 가까운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ㄹ :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로 쓰인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⑤ ㅁ : 체언 중에서 수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군.

A030

201707사관학교15

〈보기〉의 (A), (B)에 들어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가장 적절하게 묶인 것은?

보기

•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실현되는 음운 환경

결합하는 어간 \ 후속하는 어미	안울림소리로 시작	울림소리로 시작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ㅁ, ㄹ'로 끝남.	-ᄉᆞᆸ-	-ᄉᆞᄫᆞᆸ-
'ㄱ, ㅂ, ㅅ, ㅎ'으로 끝남.	-ᄉᆞᆸ-	-ᄉᆞᄫᆞᆸ-
'ㄷ, ㅈ, ㅊ'으로 끝남.	-ᄌᆞᆸ-	-ᄌᆞᄫᆞᆸ-

(가) 無量壽佛 [ ] 사ᄅᆞᄆᆞᆫ
[→ 보- + (A) + -ᄋᆞᆫ]
[현대어 풀이] 무량수불(을) 뵌 사람은

(나) 無量壽佛ᄭᅴ 나 正法 [ ]
[→ 듣- + (B) + -고져]
[현대어 풀이] 무량수불께 나 정법(을) 듣고자

	(A)	(B)
①	-ᄉᆞᄫᆞᆸ-	-ᄌᆞᄫᆞᆸ-
②	-ᄉᆞᄫᆞᆸ-	-ᄌᆞᆸ-
③	-ᄉᆞᄫᆞᆸ-	-ᄉᆞᆸ-
④	-ᄉᆞᆸ-	-ᄌᆞᆸ-
⑤	-ᄉᆞᆸ-	-ᄉᆞᆸ-

A026

201707사관학교11

〈보기〉의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습 자료]
• **절대 시제** :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시제.
• **상대 시제** : 주문장의 사건시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제.

[학습 과제]
ㄱ~ㄹ의 밑줄 친 부분의 상대 시제가 예의 밑줄 친 부분의 상대 시제와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예 학교 숙제를 마친 그녀가 음악을 듣는다.

ㄱ.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수박을 우리가 다 먹었다.
ㄴ. 퇴근한 후에 오빠는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왔다.
ㄷ. 우리 반 친구들은 밥 먹는 시간을 무척 기다렸다.
ㄹ. 나는 그 친구에게서 그가 입원한 사실을 방금 들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031

201707경찰대1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① 오늘 저녁에는 생선으로 졸임을 만들었다.
② 좌수(坐睡)는 '앉아서 졺'을 뜻하는 말이다.
③ 만듦새를 보니, 정성을 들인 것이 분명하다.
④ 진정한 봉사는 다른 사람의 알음을 바라지 않는다.
⑤ 눈이 내리고 땅이 얾으로 말미암아 길 떠날 생각을 접었다.

A032

201707경찰대2

〈보기〉의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 표기된 것은? [3점]

보기

제23항 '- 하다'나 '-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① 오뚜기, 개구리
② 더펄이, 꽹과리
③ 깔쭈기, 깍두기
④ 홀쭉이, 얼룩이
⑤ 삐주기, 누더기

A033

201707경찰대3

국어 생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① 문: '부끄러워 않다'가 맞는 말인가요,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맞는 말인가요?
답: 보조 용언 '않다'는 형용사, 동사 뒤에서 부정 표현에 쓰이므로, 형용사인 '부끄럽다'의 부정은 '부끄러워 않다'와 '부끄러워하지 않다'를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② 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발음할 때 [안녕히]와 [안녕이] 중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답: 한자어나 복합어에서 모음과 'ㅎ' 또는 'ㄴ, ㅁ, ㅇ, ㄹ'과 'ㅎ'이 결합된 경우에는 '전화[저놔]'에서와 같이 'ㅎ'이 탈락한 대로 발음합니다. 이에 따라 '안녕히'는 [안녕이]로 발음합니다.
③ 문: "벌에 쏘였다."가 맞습니까, "벌에 쐬었다."가 맞습니까?
답: 피동사 '쏘이다'의 어간 '쏘이-' 뒤에 어미 '-었-'이 붙으면, 줄여서 '쏘였-'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쏘이었다'의 준말로 '쏘였다'만이 가능합니다.
④ 문: '시래기죽'이 맞나요, '시래깃죽'이 맞나요?
답: '시래기'와 '죽'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말이 [시래기쭉/시래긷쭉]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시래깃죽'과 같이 적습니다.
⑤ 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요?
답: '이 정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주체인 '이 정보'는 높일 대상이 아니어서 서술어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가 맞습니다.

A034

201707경찰대4

부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런 일은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② 잠을 깬 사람은 절대로 나만이 아니었다.
③ 그가 남긴 작품은 비단 이 그림 한 가지뿐이었다.
④ 석이는 오직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⑤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A035

201707경찰대5

타동사 '벗다'의 반의어가 아닌 것은?

① 신다
② 붙다
③ 지다
④ 쓰다
⑤ 끼다

A036

201707경찰대6

〈보기〉의 예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우리 {나중에 / 다음에} 또 봅시다.
나. 그들은 {나중을 / * 다음을} 위하여 저축을 한다.
다. 이 {다음은 / * 나중은} 노래할 순서이다.
라. 20 페이지 {다음은 / * 나중은} 21페이지이다.
마. 우리 집 {다음 / * 나중} 집은 커다란 이층집이다.
* 표는 비문법적임을 뜻함.

① '가'를 보니 '나중'과 '다음'은 전혀 다른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군.
② '나'를 보니 '나중'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의 의미로 쓰이네.
③ '다'를 보니 '다음'은 '이번 차례의 바로 뒤'의 의미로 쓰이네.
④ '라'를 보니 '나중'은 '다음'과는 달리 순서를 전제로 하고 있군.
⑤ '마'를 보니 '다음'은 '나란히 있는 사물의 맨 마지막 것'을 뜻하네.

A037

201707경찰대8

〈보기〉의 (가)는 《월인석보》의 앞부분에 실린 《훈민정음》 언해본이며, (나)는 《월인석보》 권10의 일부이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중국 소리에서의 잇소리는 치두음과 정치음이 구분됨이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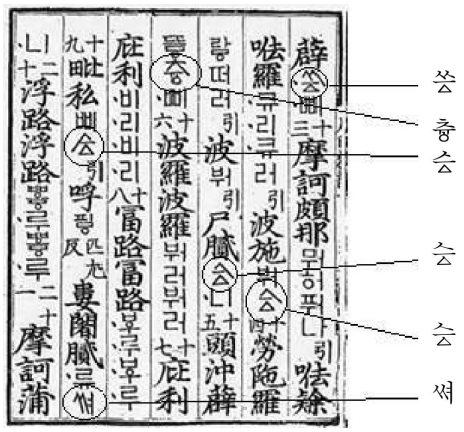
ㅈ ㅊ ㅉ ㅅ ㅆ 글자는 치두의 소리에 쓰고

ㅈ ㅊ ㅉ ㅅ ㅆ 글자는 정치의 소리에 쓰니

어금니와 혀와 입술과 목소리의 글자는 중국 소리에 통하여 쓴다.

– 《훈민정음》 언해본(현대어 역)

(나)



– 《월인석보》 권10

① (가)의 'ㅈ ㅊ ㅉ ㅅ ㅆ ㅈ ㅊ ㅉ ㅅ ㅆ'와 같은 글자를 만든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중세 국어에는 있었군.
② (나)로 미루어 보니, 《 월인석보 》 에 (가)가 들어간 것은 《 월인석보 》 에 사용된 글자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군.
③ 중국어의 잇소리는 중세 국어의 잇소리와 달리 두 종류로 나뉘었군.
④ 'ㅈ ㅊ ㅉ ㅅ ㅆ ㅈ ㅊ ㅉ ㅅ ㅆ'와 같은 글자는 우리말을 적기 위한 글자는 아니었군.
⑤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은 글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군.

A038

201707경찰대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동안 비표준어로 간주되었던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짜장면'의 표준어 결정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여전히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언중이 선호하는 말과 표준어 규정 안에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은 앞으로의 표준어 정책 방향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어문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규정의 현실화가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규정 개정의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말의 다양성을 살리고 국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표준어 확대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① '서럽다'와 '섧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② '광주리'와 '광우리'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③ '가엾다'와 '가엽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④ '모쪼록'과 '아무쪼록'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⑤ '거슴츠레하다'와 '게슴츠레하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A039

201707경찰대10

다음 문장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① 지도를 사용하면 비록 초행길일지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② 항상 가슴에 명심하여야 할 것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③ 하굣길에 삼촌 집에 들려서 물건을 받아 오너라.
④ 춥더라도 자주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해.
⑤ 그림을 그리던지 책을 읽던지 마음대로 해도 돼.

A040

201707경찰대11

〈보기〉는 받침의 발음에 관한 표준발음법의 규정이다. 밑줄 친 발음이 규정에 맞는 것은?

보기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ㄾ, ㅀ, ㅄ',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① 넓죽하다[널쭈카다]
② 외곬[외곧]
③ 없다[엄:따]
④ 여덟[여덥]
⑤ 핥다[할따]

A041

201707경찰대12

〈보기〉의 글에서 잘못되거나 어색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관현악을 위한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교향곡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서곡이다. ㉡사실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한 현대의 평가는 '위대하다'라는 평범한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베토벤은 오페라를 위한 서곡, 희곡 상연을 위한 서곡, 특별한 목적을 위한 연주회용 서곡 등 총 11곡의 서곡을 작곡했다. 그중에서도 <에그몬트>, <코리올란>, <레오노레 제3번>, <휘델리오> 이 4곡은 고금의 명곡으로서, 희곡이나 오페라의 내용과 정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중에도 음악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그중에서 <에그몬트> 서곡은 괴테가 쓴 5막의 비극 <에그몬트>에 붙은 부수 음악이다. ㉣그렇지만 이 음악은 베토벤이 40세가 되던 1810년 5월에 완성되었다. 이 부수 음악은 서곡을 포함해서 전 10곡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서곡이 뛰어나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서곡만이 곧잘 연주회의 프로그램에 오른다. 이 곡은 비극적인 서주를 지닌 소나타 형식이며, 강인한 모습 속에 따뜻한 애정을 간직한 에그몬트 백작의 성격을 절묘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①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바로 뒤의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③ ㉢은 뒷부분의 의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표현할 뿐아니라'로 바꾼다.
④ ㉣은 문맥을 고려하여 '그래서'로 바꾼다.
⑤ ㉤은 문장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나타내게 하였다.'로 수정한다.

A042

2017070인천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러한 음운 변동 유형들 중 ㉠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꽃밭[꼳빧]'은 교체 한 가지만 나타나지만, '꽃잎[꼰닙]'은 교체와 첨가 두 가지가 나타난다.

① 깎다[깍따]
② 막일[망닐]
③ 색연필[생년필]
④ 값하다[가파다]
⑤ 설익다[설릭따]

A043

2017070인천12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두 개의 홑문장을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 때, 두 홑문장 중 한 문장에서 특정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홑문장 ㉠, ㉡을 하나의 겹문장 ㉢ 으로 만든 예인데요, ㉢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 철수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였다.
+
㉡ 공원은 학교 뒤에 있다.
↓
㉢ 철수가 산책을 한 공원은 학교 뒤에 있다.

학 생 : [㉠]

① ㉠이 ㉡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습니다.
② ㉠이 ㉡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의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③ ㉠이 ㉡에 부사절로 안기면서 ㉠의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④ ㉠이 ㉡에 부사절로 안기면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⑤ ㉠이 ㉡에 명사절로 안기면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A046

2017070인천15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나랏 말ᄊᆞ미 中듕國귁에 달아 文문字ᄍᆞᆼ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ᄇᆡᆨ姓셩이 ㉡ 니르고져 ᄒᆞᇙ ㉢ 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 펴디 몯ᄒᆞᇙ 노미 하니라 내 ㉤ 이ᄅᆞᆯ 爲윙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字ᄍᆞᆼ를 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ᅇᅧ 수ᄫᅵ 니겨 날로 ᄡᅮ메 便뼌安한킈 ᄒᆞ고져 ᄒᆞᇙ ᄯᆞᄅᆞ미니라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① ㉠의 'ㅅ'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② ㉡의 '-고져'는 현대 국어의 '-고자'에 해당하는 연결 어미로 쓰였군.
③ ㉢의 'ㅣ'는 주격 조사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군.
④ ㉣과 현대 국어의 '펴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⑤ ㉤의 'ᄅᆞᆯ'은 목적격 조사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군.

A044~A045

201707인천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단어는 형태 변화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인 불변어와,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말인 가변어로 나뉜다. 둘째, 단어는 문장 속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관계언,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뉜다. 셋째, 단어는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 앞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뉜다.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는 모든 원인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다.'의 '잘못'은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이지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의 '잘못'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잘못'이 ㉠ 명사와 부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지만,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큼'이 ㉡ 명사와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경우, 수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A044

201707인천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 할머니께서 온갖 재료로 만두를 곱게 빚으셨다.
ⓒ (대화 중) "들어가도 됩니까?" / "네, 어서 오십시오."

① ⓐ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② ⓑ에서 '온갖'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③ ⓒ에서 '네'는 말하는 이의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④ ⓐ와 ⓑ에서 조사는 각각 3개씩이다.
⑤ ⓐ와 ⓑ에서 가변어는 각각 2개씩이다.

A045

201707인천14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① ㉠
-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 여기에 사과 일곱 개가 있다.

② ㉠
-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 가구가 커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
-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 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

④ ㉡
- 나를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⑤ ㉡
- 모두 같이 학교에 갑시다.
-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이 생각난다.

A047

201708대구11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입다 [입어, 입으니, 입는] 동사
㉮ 【…을】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
¶ 옷을 입다.
㉯ 【…을】 (도움, 손해 따위와 같은 말을 목적어로 하여) 받거나 당하다.
¶ 혜택을 입다.

벗다 [벗어, 벗으니, 벗는] 동사
㉮ 【…을】 사람이 자기 몸 또는 몸의 일부에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
¶ 옷을 벗다.
㉯ 【…을】 누명이나 치욕 따위를 씻다.
¶ 누명을 벗고 출감하다.
㉰ 사람의 어수룩함이나 미숙한 태도가 없어지다.
¶ 미숙한 티가 벗다.

① 용례를 보니 입다㉮와 벗다㉮는 반의 관계로 볼 수 있군.
② 활용 정보를 보니 '벗다'는 '(병이) 낫다'와 달리 규칙 활용을 하는군.
③ 품사 정보를 보니 '입다'와 '벗다'는 모두 하나의 품사로만 사용되는군.
④ 문형 정보를 보니 벗다㉰는 벗다㉮, ㉯와 달리 두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군.
⑤ 뜻풀이를 보니 '그가 그녀의 혐의를 벗겼다.'에는 벗다㉯의 사동사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군.

A048

201708대구12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① 그는 매우 기쁜 나머지 노래와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다.
② 그들은 새롭게 가꾼 텃밭에 사과나무를 심기로 결정했다.
③ 그는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④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결코 우승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힘든 시련에도 우리는 학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A049

201708대구13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관형절이란 안은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말한다. 관형절에는 안긴문장 내에 생략된 성분이 있는 관계 관형절과 그렇지 않은 동격 관형절이 있다. 관계 관형절은 그 자체로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없지만, 동격 관형절은 안긴 문장이 그 자체로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 또한 관계 관형절은 삭제해도 전체 문장이 자연스럽지만 동격 관형절을 삭제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불완전해진다.

㉠ 세희가 그린 그림이 멋졌다.
㉡ 낙엽이 지는 광경이 아름답다.
㉢ 준영이는 지갑을 주운 골목으로 가 보았다.
㉣ 준영이는 지갑을 주운 경험을 다시 떠올렸다.

① ㉠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 안겨 있다.
② ㉡ 의 안긴문장은 그 자체로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
③ ㉡ 과 같은 유형의 문장으로 '네가 놀랄 일이 일어났다.'를 들 수 있다.
④ ㉢은 ㉣과 달리 동격 관형절이 사용되었으므로 관형절을 삭제하면 문장이 불완전해진다.
⑤ ㉢과 ㉣은 관형절이 각각 '골목'과 '경험'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A050~A051

201708대구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는 다르게 일부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먼저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경우 체언의 끝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덧생기는 것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구멍을 뜻하는 중세어 '구무'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구무+ㅣ→ 굼기'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ㅜ'가 탈락하고 'ㅁ'이 앞음절의 받침이 된다. 그리고 'ㄱ'이 덧생겨 주격 조사 '이'에 연음이 된다. 그러나 공동의 부사격 조사 '와'와 결합할 때는 예외적으로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중세 국어의 체언 중에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덧생기는 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부른다. 'ㅎ 종성 체언'은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할 경우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경우 'ㅎ'을 뒤따르는 모음에 연음한다. 또한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경우 끝소리인 'ㅎ'과 축약되어 'ㅋ'과 'ㅌ'으로 나타난다. 현대 국어에서 'ㅎ 종성체언'은 '안+밖'이 '안팎'이 되는 것처럼 합성어를 만들 때 그 흔적이 나타나기도 한다.

A050

201708대구1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가온대 구ᄇᆡ<u>ᄂᆞᆫ</u> 굼긔 든 늘근 뇽이

(정철, 「성산별곡」 중에서)

[현대어 풀이]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① '굼'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면서 체언의 받침이 연음된 것이다.

② '굼'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긔'가 결합하면서 원래의 형태가 유지된 것이다.

③ '구무'에 관형격 조사 '긔'가 결합하면서 체언 끝 모음이 탈락한 것이다.

④ '구무+의'로 분석이 되며, '구무'가 공동의 부사격 조사 '와'와 결합할 때는 '굼과'가 된다.

⑤ '구무'에 처소의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하면서 체언 끝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덧생긴 것이다.

A051

201708대구1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대 국어에서도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형태가 달라지는 어휘가 있겠군.

② '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ㅎ'이 나타나겠군.

③ '안과 밖'에서 '안과'는 중세 국어에서는 '안콰'로 쓰지 않고 '안과'로 썼겠군.

④ '안+밖'이 '안팎'이 되는 과정에서 'ㅂ'이 'ㅍ'으로 바뀐 것은 음운의 교체 현상 때문이겠군.

⑤ '옳지 않다'가 [올치 안타]로 축약이 되는 현상은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군.

A052

201708전북11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열다 [열어, 여니, 여오] 동사

㉮ 「…을」

1.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 (예) 가방을 열다.
2.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 (예) 동창회를 열다.

㉯ 「…에 …을」

1. 사업이나 경영 따위의 운영을 시작하다. (예)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오지에 학교를 열었다.
2.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다. (예) 왕건은 이 땅에 새 왕조를 열었다

㉰ 「…에/에게 …을」

1. ('마음'을 목적어로 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터놓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다. (예) 그는 결국에는 아내에게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었다.
2. ('입'을 목적어로 하여)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터놓거나 이야기를 시작하다. (예) 용의자는 마침내 형사에게 입을 열었다.

닫다 [닫아, 닫으니, 닫는] 동사

「…을」

1.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도로 제자리로 가게 하여 막다. (예) 뚜껑을 닫다
2. 회의나 모임 따위를 끝내다. (예) 오늘 모임을 이만 닫고, 내일 다시 열기로 하겠습니다.
3. 하루의 영업을 마치다. (예) 지금은 은행이 문을 닫았을 시간이다.
4. ('입'을 목적어로 하여) 굳게 다물다. (예)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① '열다'는 의미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가 달라지겠군.
② '열다'와 '닫다'는 모두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겠군.
③ '열다' ㉮-2와 '닫다' 2, '열다' ㉰-2와 '닫다' 4는 각각 반의 관계이겠군.
④ '열다'와 '닫다'는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겠군.
⑤ '닫다' 1의 예로 '서랍을 닫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A053

201708전북1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적용된 음운 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에는 어느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 '교체', 둘 이상의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되는 ㉡ '축약', 원래 있던 소리가 사라지는 ㉢ '탈락', 없던 소리가 생겨나는 ㉣ '첨가'가 있다.

보기2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ㅕ, ㅗ, ㅜ, ㅟ'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7항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ㄼ, ㄿ, ㅄ)'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제19항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① 제15항의 예로 '겉옷[거돋]'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제17항의 예로 '미닫이[미다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제18항의 예로 '색연필[생년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제19항의 예로 '금융[금늉]'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제20항의 예로 '칼날[칼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054

201708전북13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골라 묶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앞에 오는 형태소의 말음이 연음될 경우 그것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는 ㉠ 연철 표기를 채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 하지 않고 각 형태소들을 분리하여 적는 ㉡ 분철 표기를 채택하였다.

가. ᄆᆞᄎᆞᆷ내 제 ⓐ ᄠᅳ들 시러 펴디(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나. 니보ᄂᆞᆫ 뇽안현 ⓑ 사ᄅᆞᆷ이니(이보는 용안현 사람이니)
다. 불휘 기픈 남ᄀᆞᆫ ⓒ ᄇᆞᄅᆞ매 아니 뮐ᄊᆡ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라. 홍ᄉᆡᆨ이 거록ᄒᆞ야 ⓓ 블은 긔운이 하ᄂᆞᆯ을 ᄭᅱ노더니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놀더니)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A055~A056

201708전북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문법적인 절차를 '접두 파생법'이라고 하고, 접두 파생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파생어를 ' 접두 파생어'라고 한다. 접두 파생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로, 접두 파생법은 어근에 파생 접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 파생법보다 생산력이 약하다. 곧 접두 파생법으로 형성된 파생어의 종류는 접미 파생법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의 종류보다 훨씬 적은데, 이는 각각의 접두사와 결합하는 어근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접두 파생법에서 접두사에는 일반적으로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 구조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은 없고, ㉠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한정적 기능'만 있다. 예를 들면, 명사 '개살구'는 명사 '살구'에 파생 접두사인 '개-'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파생어의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셋째로, 접두사는 체언과 용언의 어근에만 붙는 것이 특징인데, 체언 앞에 붙는 접두사는 체언의 의미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관형사와 비슷하게 기능하며, 용언 앞에 붙는 접두사는 용언의 의미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또한, 같은 형태의 접두사가 체언이나 용언의 어근에 두루 붙어서 파생어를 형성하는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접두사 '덧-'은 '덧-저 고리'처럼 체언에 붙어 파생어를 형성하기도 하고, '덧-붙다'처럼 용언의 어근에 붙어 파생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한편, 접두사에는 한정적 기능만 있을 뿐이지 지배적인 기능은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 예외적으로 접두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다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접두 파생어 '메마르다'는 동사 어근인 '마르다'에 접두사 '메-'가 붙어서 만들어진 형용사이다.

A055

201708전북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활짝 웃는 소년의 미소에서 덧니가 눈에 보였다.
ⓑ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겠다.
ⓒ 맑은 날씨에 거리마다 사람들이 들끓으면서 활기가 돌았다.
ⓓ 힘겨울 때는 서로의 처지를 뒤바꿔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 • 치사랑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내리사랑을 넘지는 못했다.
• 어떤 방법을 써도 치솟는 눈물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① ⓐ에서 '덧니'의 접두사 '덧-'은 '거듭된'의 뜻을 더하면서 관형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② ⓑ에서 '선무당'의 접두사 '선-'은 '서툰'의 뜻을 더하면서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③ ⓒ에서 '들끓으면서'의 접두사 '들-'은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하면서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④ ⓓ에서 '뒤바꿔서'의 접두사 '뒤-'는 '반대로', '뒤집어'의 뜻을 더하면서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⑤ ⓔ에서 '치사랑'과 '치솟는'의 접두사 '치-'는 같은 형태의 접두사가 체언과 용언에 두루 붙어서 파생어를 형성하도록 기능한다.

A056

201708전북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 : 길가에 샛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 : 먹기에 알맞은 정도로 과일이 잘 익었다.
② ㉠ : 맨손으로 암벽을 오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
㉡ : 막일도 도맡아 할 정도로 성실한 청년이었다.
③ ㉠ : 그녀는 너무 강마른 체형이어서 슬퍼 보였다.
㉡ : 그의 험난하고 얄궂은 운명이 바뀌는 듯했다.
④ ㉠ : 젊은 사람이 엇되어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
㉡ : 분위기에 걸맞게 옷차림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⑤ ㉠ : 그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마음이 착잡했다.
㉡ : 그 선생님은 군소리를 많이 하시는 유형이었다.

A057~A058

201709평가원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1: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2 :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선생님: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3: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답니다.

학생4: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강'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A057

201709평가원11

〈보기〉의 ㄱ~ㅁ 중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선생님'을 줄여서 '샘'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ㄴ.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ㄷ. '사범'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ㄹ.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ㅁ.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A058

201709평가원1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② 언니는 가구를 전부 새것으로 바꿨다.
③ 아이가 요사이에 몰라보게 훌쩍 컸다.
④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시된다.
⑤ 나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A059

201709평가원13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수빈, 나경, 세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수빈: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나경: 고마워. ⓐ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 주셨어.
세은: 너희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사고 싶은데 ⓑ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수빈: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세은: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 우리끼리 가지, 뭐.
나경: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 우리 다 같이 가자.

① ⓐ－ⓑ
② ⓐ－ⓓ
③ ⓑ－ⓔ
④ ⓒ－ⓓ
⑤ ⓒ－ⓔ

A060

201709평가원14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1

㉠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 되었다.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보기2

ⓐ 므슴 **마ᄅᆞᆯ 니ᄅᆞᄂᆞ뇨** [무슨 말을 말하느냐?]
ⓑ 져므며 늘구미 **잇ᄂᆞ녀**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 虛空과 **벼를 보더시니**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
ⓓ **世尊하** 내 堂中에 이셔 몬져 如來 **보ᅀᆞᆸ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뵙고]

① ⓐ의 '니ᄅᆞᄂᆞ뇨'와 ⓑ의 '잇ᄂᆞ녀'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의 '마ᄅᆞᆯ'과 ⓒ의 '벼를'을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의 '世尊하'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의 '보더시니'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의 '보ᅀᆞᆸ 고'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A061

201709평가원15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거기에는 눈이 <u>왔겠다</u>. / 지금 거기에는 눈이 <u>오겠지</u>.
㉡ 그가 집에 <u>갔다</u>.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u>갔다</u>.
㉢ 내가 <u>떠날</u>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u>떠날</u> 때 비가 왔다.
㉣ 그는 지금 학교에 <u>간다</u>. / 그는 내년에 <u>진학한다고</u> 한다.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u>작다</u>. / 작년에 그는 키가 <u>작았다</u>.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군.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A062

201710서울11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 벌써 바깥이 칠흑같이 어둡다.
㉢ 신임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다.

① ㉠과 ㉡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② ㉠과 ㉢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 주고 있다.
③ ㉡과 ㉢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④ ㉢과 ㉣에서 주어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⑤ ㉣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가 두 번 쓰였다.

A063

201710서울12

〈보기〉를 참조하여 단어의 발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연음은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 발음되는 현상이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곧바로 연음이 일어나지만, 'ㅏ, ㅓ, ㅗ, ㅜ, ㅟ'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홑옷[호돋]'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 연음이 일어난다.

① '밭은소리'는 용언의 활용형인 '밭은'과 명사 '소리'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바든소리]로 발음한다.
② '낱'에 조사 '으로'가 붙으면 [나트로]라고 발음하지만, 어근 '알'이 붙으면 [나달]로 발음한다.
③ '앞어금니'는 어근 '앞'과 '어금니'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아버금니]로 발음한다.
④ '겉웃음'은 '웃-'이 어근이고, '-음'이 접사이므로 [거두슴]으로 발음한다.
⑤ '밭' 뒤에 조사 '을'이 붙으면 연음되어 [바틀]로 발음한다.

A064

201710서울13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 어떠한 두 사건을 '-다가'나 '-아서/-어서'에 의해 연결할 때, 두 사건의 시제가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두 사건의 의미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지 (가)~(라)에서 살펴봅시다.

(가) 찌개를 먹다가 혀를 데었다.
(나) 찌개를 끓였다가 다시 식혔다.
(다) 그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라) 내가 문을 쾅 닫아서 동생이 잠을 깼다.

① (가)와 (나)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지만, (가)에는 (나)와 달리 '-다가'로 연결된 앞 절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났어.
② (가)와 (다)에서는 뒤 절의 시제가 과거임을 확인해야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
③ (가)와 (라)에서는 모든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도,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어.
④ (나)와 (다)에서는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⑤ (다)와 (라)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 모두 '-아서/-어서'로 이어졌지만, (라)는 (다)와 달리 앞 절의 사건이 뒤 절의 사건의 원인이나 이유로 이해될 수 있어.

A065~A066

201710서울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사동 표현은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거나,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진다.

서술어가 형용사나 자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주동문 (ㄱ)과 사동문 (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ㄱ) 얼음이 녹는다.
(ㄴ)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한편 서술어가 타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주동문 (ㄷ)과 사동문 (ㄹ)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ㄷ) 영희가 책을 읽었다.
(ㄹ) 선생님께서 영희에게 책을 읽히셨다.

한편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을 단형 사동이라 하고, '-게 하다'에 의한 사동을 장형 사동이라 한다. 사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사동 행위를 받는 대상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를 직접 사동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접 사동이라 하는데, 단형 사동은 맥락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나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해석만을 허용한다.

15세기 국어에서 사동 범주는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호-/-후-, -ㅇㆍ-/-으-'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게 ᄒᆞ다'에 의해 만들어졌다.

A065

201710서울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얼음 위에서 팽이가 돈다.
㉡ 지원이가 그 일을 맡았다.
㉢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하였다.

①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의 주어는 목적어로 바뀔 것이다.
②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뀔 것이다.
③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의 주어는 부사어로 바뀔 것이다.
④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것이다.
⑤ ㉣은 ㉢과 달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A066

201710서울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15세기 국어]** ᄀᆞᄅᆞ매 ᄇᆡ 업거늘 ㉠ 얼우시고
  [현대 국어] 강에 배가 없으므로 (강물을) 얼리시고
- **[15세기 국어]** 묵수믈 ㉡ 일케 ᄒᆞ야뇨
  [현대 국어] 목숨을 잃게 하였는가
- **[15세기 국어]** 比丘란 노피 ㉢ 안치시고
  [현대 국어] 비구는 높이 앉히시고
- **[15세기 국어]** 나랏 小民을 ㉣ 사ᄅᆞ시리잇가
  [현대 국어]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시겠습니까
- **[15세기 국어]** 투구 아니 ㉤ 밧기시면
  [현대 국어] 투구를 아니 벗기시면

① ㉠은 동일한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다른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② ㉡은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15세기 국어의 '-게 ᄒᆞ다'가 쓰인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③ ㉢은 15세기 국어에서 어근과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는군.
④ ㉣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에서 쓰인 양상을 보여 주는군.
⑤ ㉤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어근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는군.

A067~A068

201710전북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를 반의 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부른다.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의미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 상반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 성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의미 성분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 'A'와 'B'가 결합하여 'AB'라는 단어가 된 경우, 이 단어는 'A와 B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아들딸'은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 인데, 이는 두 단어가 지닌 의미를 단순히 합한 것으로, 이때 합해진 두 단어 중 어느 한쪽을 중심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두 단어의 의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뜻하면서도 거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물불'은 '물과 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기본 뜻이지만, '어려움이나 위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때 후자의 뜻은 원래의 의미에서 확장된 융합 의미라 할 수 있다. 특정 단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된 의미가 형성될 때 품사가 변하기도 한다.

'흑백(黑白)' 역시 중심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생긴 단어이지만 '물 불'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흑백'은 '검은색과 흰색을 아울러 이르는 말.', '색조가 검은색의 짙고 옅음으로 이루어진 것.', '옳고 그름.', '흑인과 백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두 단어가 융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조되는 두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을 일으켜서 결합한 것이다.

A067

201710전북1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을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그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 슬픔을 느꼈다. 그 순간 ⓑ 아버지와 ○○수목원 ⓒ 내에 있는 산책로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던 때 가 떠올랐다. ⓓ 가끔은 서로의 생각이 달라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버지와 ⓔ 딸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순간이 ⓕ 기쁨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이곳을 여행하는 동안 ⓖ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식당 ⓗ 안으로 들어섰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A068

201710전북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좌우 (명사)
1. 왼쪽과 오른쪽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옆이나 곁 또는 주변.
3.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
4. 좌익과 우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5. 어떤 일에 영향을 주어 지배함.

상하 (명사)
1. 위와 아래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귀하고 천함.
4. 좋고 나쁨.
5. 오르고 내림.

밤낮
(명사)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부사)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

① '좌우 1'은 '좌'와 '우'가 지닌 의미를 단순히 합한 것이다.
② '좌우 4, 5'는 원래 의미에서 확장되어 융합된 의미를 형성한 것이다.
③ '상하 1'을 구성하는 '상'과 '하' 중에 어느 한쪽이 중심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상하 3, 4, 5'는 대조되는 두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을 일으켜서 결합한 것이다.
⑤ '밤낮'은 의미가 확장되어 융합 의미로 쓰일 때 품사가 변하는 예라 할 수 있다.

A069

201710전북13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동작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말한다.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주로 '-고 있다', '-어 있다', '-어 버렸다'와 같은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결합을 통해 실현되거나 '-(으)면서', '-고서'와 같은 연결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진행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완료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 있다'에 의해 동작상이 실현될 경우, 완료상과 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중의성을 지니기도 한다.

		진행상	완료상
①	꽃이 피어 있다.		∨
②	밥을 다 먹어 버렸다.		∨
③	나는 말을 타고 있다.		∨
④	나는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	∨	
⑤	할머니는 콩나물을 사면서 값을 흥정했다.	∨	

A070

201710전북14

〈보기1〉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1

선생님: 의문문에는 '예-아니오'를 묻는 판정 의문문과 의문사를 동반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습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어떤 의문문인지에 따라 구현 양상이 달랐는데요. 다음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주어가 1, 3인칭 일 때	용언의 어간 + 의문형 어미 '-녀'	용언의 어간 + 의문형 어미 '-뇨'
	체언+의문 조사 '가'	체언+의문 조사 '고'
주어가 2인칭일 때	의문문 종류와 상관없이 의문형 어미 '-ㄴ다' 또는 '-ㄹ다'와 결합	

보기2

* 이 엇던 ㉮ (이 어떤 사람이냐)
* 네 엇뎨 ㉯ (너는 어떻게 아느냐)
* 이 ᄯᅳ리 너희 ㉰ (이 딸이 너희 종이냐)

	㉮	㉯	㉰
①	사ᄅᆞᆷ고	아ᄂᆞ녀	죵녀
②	사ᄅᆞᆷ가	아ᄂᆞ뇨	죵고
③	사ᄅᆞᆷ고	안다	죵가
④	사ᄅᆞᆷ뇨	안다	죵고
⑤	사ᄅᆞᆷ가	아ᄂᆞ뇨	죵가

A071

201710전북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놓+고 → [노코], 많+지 → [만:치]
㉡ 빌+는 → [비:는], 살+느냐 → [사:느냐]
㉢ 맨+입 → [맨닙], 눈+요기 → [눈뇨기]
㉣ 같+이 → [가치], 미닫+이 → [미:다지]
㉤ 짓+는 → [진:는], 항+로 → [항:노]

① ㉠, ㉣은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축약되었다.
② ㉡, ㉢은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변했다.
③ ㉡, ㉤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닮아 가는 동화에 속한다.
④ ㉢, ㉤은 음운 변동의 과정에서 'ㄴ'이 첨가되었다.
⑤ ㉣, ㉤은 뒤의 음운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이 변동하였다.

A072~A073

201711수능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단어들은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있고, ㉢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A]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ᄂᆞᆫ 엇던 사ᄅᆞᆷ고(이는 어떤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A072

201711수능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A073

201711수능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15세기 국어
- 누를 니ᄅᆞ더뇨(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 이 누고(네 스승이 누구인가?)
- ᄂᆞᄆᆞᆫ 누구(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이 벗은 누구인가?)
- 져 ᄒᆞᆫ 벗은 누구고(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 ]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A074

201711수능13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 그는 너무 헌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A075

201711수능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흙일 → [흥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A076

201711수능15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개정 전	개정 후
㉠	긁다 (동사)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긁다 (동사)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김-밥[김:밥] (명사) ……	김-밥[김:밥/김:빱] (명사) ……
㉢	냄새 (명사)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낌새.	냄새 (명사)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낌새.
	내음 (명사) '냄새'의 방언(경상).	내음 (명사)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태양-계 (명사)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	태양-계 (명사)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
㉤	(표제어 없음)	스마트-폰 (명사)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 사전의 개정 내용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임.

①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② ㉡: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되었군.

③ ㉢: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제시되었군.

④ ㉣: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되었군.

⑤ ㉤: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되었군.

A077~A078

201803서울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가령 '국'과 '물'은 따로 발음하면 제 소리대로 [국]과 [물]로 발음되지만, '국물'처럼 'ㄱ'과 'ㅁ'을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 'ㄱ'이 [ㅇ]으로 바뀐다. 이것은 국어에서 장애음*과 비음을 자연스럽게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화[구콰]', '좋다[조:타]'처럼 예사소리와 'ㅎ'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도 국어에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자음들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음운 변동으로 볼 수 있다. 비음화와 자음 축약은 장애음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ㅎ'의 앞이나 뒤에서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와 같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살펴보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ㄷ,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ㄷ,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 예를 들면, '국밥'은 반드시 [국빱]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갑짜기]로 발음되는 단어를 '갑자기'로 표기하더라도 발음할 때에는 예외 없이 [갑짜기]가 된다.

한편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존재한다. '(신을) 신고'가 [신:꼬]로 발음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명사인 '신고(申告)'는 [신고]로 발음되듯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비음과 예사소리는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

국어의 규칙적인 음운 변동 중에는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발음들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장애음 : 구강 통로가 폐쇄되거나 마찰이 생겨서 나는 소리.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이름.

A077

201803서울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집념[짐념]도 강하다.
- 춤을 ⓑ 곧잘[곧짤] 춘다.
- 책상에 ⓒ 놓고[노코] 가라.
- 음식을 ⓓ 담기[담:끼]가 힘들다.
- 모기한테 ⓔ 뜯긴[뜯낀] 모양이다.

① ⓐ와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와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을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③ ⓑ와 ⓒ는 발음될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④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⑤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뀐다.

A078

201803서울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예) 가끔, 어찌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 잔뜩, 훨씬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몹시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딱딱	딱닥

①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소리가 되므로 '가끔'은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②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때 규칙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몹시'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③ '딱딱'은 '딱닥'으로 적으면 표준 발음이 [딱닥]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적지 않는다.
④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표준 발음인 [국쑤]로 발음되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
⑤ '잔뜩'은 비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했다는 뚜렷한 까닭이 있으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A079

201803서울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 지난 시간에 모둠별로 <그림>의 대상을 지칭하는 새말을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새말들의 단어 구조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모둠 활동 결과**

<그림>

	새말
㉠	오이칼, 껍질칼
㉡	갉작갉작칼, 사각사각칼
㉢	까개, 깎개
㉣	긁도구, 밀도구
㉤	박박이, 쓱쓱이

① ㉠은 명사 어근들을 결합하여 만든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② ㉡은 부사 어근과 명사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③ ㉢은 동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④ ㉣은 명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⑤ ㉤은 부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A080

201803서울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① ㉠, ㉢에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② ㉠, ㉣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④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⑤ ㉢,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A081

201803서울15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습 활동	다음 자료를 보고, 중세 국어의 조사에 대해 탐구해 보자.
학습 자료	ㄱ. **ᄃᆞ리** 즈믄 ᄀᆞᄅᆞ매 **비취요미** 곤ᄒᆞ니라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침과 같으니라) ㄴ. **네** 후(後)에 **부톄** ᄃᆞ외야 (네가 후에 부처가 되어) ㄷ. **부텻** 모미 여러 **가짓** 상(相)이 ᄀᆞᄌᆞ샤 (부처의 몸이 여러 가지의 상이 갖춰져 있으시어) ㄹ. **사ᅀᅴ** 등과 **도ᄌᆞ기** 입과 눈 (사슴의 등과 도적의 입과 눈) ㅁ. 사ᄅᆞᄆᆡ **모ᄆᆞᆯ** 득(得)ᄒᆞ고 **부텨를** 맛나 잇ᄂᆞ니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활동 결과	(가)

① ㄱ의 'ᄃᆞ리'와 '비취요미'에서 '이'가 각각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② ㄴ의 '네'에서 'ㅣ'가 주격 조사로, '부톄'에서 'ㅣ'가 보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③ ㄷ의 '부텻'과 '가짓'에서 'ㅅ'이 모두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④ ㄹ의 '사ᅀᅴ'와 '도ᄌᆞ기'에는 '의'가 각각 기준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⑤ ㅁ의 '모ᄆᆞᆯ', '부텨를'에는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A082

201804경기1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 네 가지 변동 중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음운이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을 겪기도 한다.

㉠ 낱낱이→[난:나치]
㉡ 넋두리→[넉뚜리]
㉢ 입학식→[이팍씩]
㉣ 첫여름→[천녀름]

①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② ㉡과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탈락이다.
③ ㉠에서 발음된 'ㅊ'과 ㉢에서 발음된 'ㅍ'은 공통적으로 음운이 축약된 것이다.
④ ㉠에서 'ㅌ'이 'ㄴ'으로, ㉣에서 'ㅅ'이 'ㄴ'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교체의 횟수는 같다.
⑤ ㉡에서 'ㄲ'이 'ㄱ'으로, ㉢에서 'ㅅ'이 'ㅆ'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횟수는 다르다.

A083

201804경기12

〈보기〉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이런 결합 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기도 해서,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때 ㉡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① 군것질
② 바느질
③ 겹겹이
④ 다듬이
⑤ 헛웃음

A084

201804경기13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1. 밖 명사
「1」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 ¶ 이 선 밖으로 나가시오.
「2」 겉이 되는 쪽. 또는 그런 부분. ¶ 옷장 안은 깨끗했으나, 밖은 긁힌 자국으로 엉망이었다.
「3」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 예상 밖으로 일이 복잡해졌다.

2. 밖에 조사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3. 뜻밖-에 부사
생각이나 기대 또는 예상과 달리. ≒ 의외로.
¶ 아버지께 여행을 가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뜻밖에도 흔쾌히 허락하셨다.

보기2

출입문 ㉠ 밖 복도는 시끌시끌하다. 이런 생기를 느낄 수 있는 날도 ㉡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졸업이 가까워지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 뜻밖에도 아쉬움이 더 크다. 추억이 많으니 그럴 ㉣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졸업 후 주어질 ㉤ 기대 밖의 선물 같은 시간들을 그려 보며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① ㉠은 <보기 1>의 1 「1」 의 의미로 쓰인 것이군.
② ㉡은 <보기 1>의 2가 사용되었으므로 '며칠'과 '밖에'를 붙여 써야겠군.
③ ㉢은 <보기 1>의 3이 사용되었으므로 '의외로'라고 바꿔 쓸 수 있겠군.
④ ㉣은 <보기 1>의 1 「2」 의 의미이므로 '수'와 '밖에'를 띄어 써야겠군.
⑤ ㉤은 <보기 1>의 1 「3」 의 용례로 추가할 수 있겠군.

A085~A086

201804경기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나뉘는데, 겹문장에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대등하게 혹은 종속적으로 결합된 문장을 말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이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가지며, '-고', '-지만'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목적 등의 의미를 가지며, '-아서/-어서', '-(으)면', '-(으)러'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A] 한 문장이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다른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그것을 안은문장이라 하고, 이때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한다. 안긴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명사절은 '-(으)ㅁ', '-기'가 붙어 만들어지며 문장 안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관형절은 '-(으)ㄴ', '-는', '-(으)ㄹ' 등이 붙어 뒤의 체언을 꾸민다. 부사어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은 다른 절들과 달리 특별한 표지(標識)가 붙지 않는다. 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 등을 인용한 것을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나 '하고'와 같은 조사가,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간접 인용절에는 '고'와 같은 조사가 쓰인다. 한편 안긴문장의 한 요소가 안은문장의 요소와 동일한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기기도 한다.

중세국어의 문법 자료에서도 겹문장이 확인된다. 이어진문장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되는데,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어미가 붙어 성립되기도 하였다. 안은문장의 경우 명사절이 '-옴/-움'이나 '-디', '-기'에 기대어 나타났으며, 관형절은 '-(으)ㄴ' 외에 'ㅅ'에 기대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부사절은 현대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인용절이나 서술절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표지 없이 나타났다.

A085

201804경기1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ㄱ.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ㄴ.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ㄷ.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① ㄱ은 ㄴ과 달리,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② ㄴ은 ㄱ과 달리, 부사절이 사용되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③ ㄷ은 ㄴ과 달리,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한 절이 있다.
④ ㄱ과 ㄷ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⑤ ㄴ과 ㄷ은 모두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다.

A086

201804경기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중세] ᄆᆞᅀᆞᆯ히 멀면 乞食ᄒᆞ디 어렵고
[현대어 풀이]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고
-「석보상절」-

(나)
[중세] 이 東山ᄋᆡ 남기 됴ᄒᆞᆯᄊᆡ 노니논 ᄯᅳ히라
[현대어 풀이] 이 동산은 나무가 좋으므로 내가 노니는 땅이다.
-「석보상절」-

(다)
[중세]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ᄉᆡ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용비어천가」-

① (가)의 '乞食ᄒᆞ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절을 만들 때 '-디'가 사용되었군.
② (나)의 '남기 됴ᄒᆞᆯᄊᆡ'가 '이 東山ᄋᆞᄂᆞ'의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서술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③ (다)의 '곶 됴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 '-고'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군.
④ (가)의 'ᄆᆞᅀᆞᆯ히 멀면'과 (다)의 '불휘 기픈'을 보니 '-(으)ㄴ'이 붙어 관형절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⑤ (나)의 '됴ᄒᆞᆯᄊᆡ와 (다)의 'ᄆᆡᆯᄉᆡ 를 보니 현대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표지가 사용되었군.

A088~A089

201805전북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면서 나는 소리로,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인 조음 위치와 장애를 만드는 방법인 조음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나누어진다.

[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한 것을 자음 체계라고 하는데,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는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중세 국어에서는 'ㅿ'와 'ㆆ', 'ㅇ', 'ㆁ'와 같이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이 존재하였으며, 'ㅶ', 'ㅸ'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자음의 조음 위치가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에서 'ㅈ, ㅉ, ㅊ'은 'ㄷ, ㄸ, ㅌ, ㅅ'과 마찬가지로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 '치음(齒音)'이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ㄷ, ㄸ, ㅌ, ㅅ'과 달리 센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나오는 '경구개음(硬口蓋音)'으로 바뀌었고 현대 국어에서도 'ㅈ, ㅉ, ㅊ'은 경구개음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는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 자음을 발음함에 있어서,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그 뒤에 오는 특정 자음과 만나거나 특정 모음과 만나 소리가 날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소리의 변화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를 '동화(同化)'라고 한다.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각각 'ㅇ, ㄴ,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나 'ㄴ'이 'ㄹ'의 앞 또는 뒤에서 'ㄹ'로 바뀌는 유음화는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동화에 해당하며, 'ㄷ, ㅌ'이 단모음 'ㅣ'나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변화하는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동화에 해당한다.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치]로 발음되는 것도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A088

201805전북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그는 국물을 놓기 위해 여닫이를 열어 상을 폈다.
㉡ 그는 홑이불을 걷은 후에 닫힌 창고를 열어 난로를 꺼냈다.
㉢ 그는 업무를 마친 후 책상에 붙여 둔 계획표를 떼었다.

① ㉠의 '여닫이'는 'ㄷ'이 단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여다지]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② ㉡의 '닫힌'은 'ㄷ'이 접미사 '-히-'와 만나 [다친]으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③ ㉢의 '붙여'는 'ㅌ'이 이중 모음 'ㅕ'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부쳐]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④ ㉠의 '국물'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의 '홑이불'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⑤ ㉡의 '난로'와 ㉢의 '업무'는 모두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A089

201805전북13

[A]를 바탕으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중세 국어

- 나·랏:말ᄊᆞ·미 中듕國·귁·에 달·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 곶 도ᄒᆞᆫ 여름 하ᄂᆞ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ᇙ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나) 근대 국어

- 어ᄃᆡ 머므러야 죠흐료
  (어디에 머물러야 좋은가)
- 빗최던 거슨 모혀 소혀텨로
  (비추던 것이 모여 소혀처럼)
- 곳 지ᄂᆞᆫ 時節(시절)에 ᄯᅩ 너를 맛보과라
  (꽃 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만나 보는구나)

① (가)에서 '도ᄒᆞᆫ'와 '펴디'의 'ㄷ'은 모두 '제'의 'ㅈ'과 조음 위치가 같았겠군.
② (가)의 '듕귁'과 '몯ᄒᆞᇙ'을 보니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 없는 'ㆁ'과 'ㆆ'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③ (가)에서 'ᄠᅳ들'을 보니 중세 국어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이어지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군.
④ (나)에서 '죠흐료'와 '빗최던'의 'ㅈ'과 'ㅊ'은 모두 센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에 해당하겠군.
⑤ (가)의 '곶'이 (나)에서는 '곳'으로 표기된 것을 보니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변하면 해당 음절의 표기 방식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군.

A090

201805전북14

다음은 '받다'의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이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받다[01] 「동사」
[1] 【…에서/에게서 …을】
「1」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2」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 ㉠
「3」 (㉡) ¶ 심사 위원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다.
[2] 【…을 …에】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 …… ㉢
¶ 따끈한 목욕물을 욕조에 받다.

받다[02] 「동사」 【…을】
「1」 머리나 뿔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 …… ㉣
¶ 소가 엉덩이를 받아서 다쳤다.

① '받다[01]'과 '받다[02]'는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겠군.
② '받다[02]'의 피동사는 '받히다'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의 용례로는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를 들 수 있겠군.
④ ㉡에는 '점수나 학위 따위를 따다.'가 들어갈 수 있겠군.
⑤ ㉢은 세 자리 서술어인 반면, ㉣은 두 자리 서술어라 할 수 있겠군.

A091

201805전북1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 문장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그것이 결합되는 체언이 지니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그 앞의 수 관형사와 띄어 쓴다. 다만 수 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① 믿을 것은 오로지 (실력뿐 / 실력 뿐)이다.
→ 제41항을 참고하면 '실력뿐'으로 붙여 써야 되겠군.

② 아이가 비행기를 (저렇게까지 / 저렇게 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
→ 제41항을 참고하면 '저렇게까지'로 붙여 써야 되겠군.

③ 명주는 (무명만큼 / 무명 만큼) 질기지 못하다.
→ 제42항을 참고하면 '무명 만큼'으로 띄어 써야 되겠군.

④ 그는 서점에서 책 (두권 / 두 권)을 샀다.
→ 제43항을 참고하면 '두 권'으로 띄어 써야 되겠군.

⑤ 그의 수중에는 (100원 / 100 원)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 제43항을 참고하면 '100원'과 '100 원'을 모두 쓸 수 있겠군.

A087

201805전북11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내가 어제 먹은 고기는 맛이 좋았다.
㉡ 나는 내 친구 민우가 왔음을 이제야 알았다.
㉢ 운동을 좋아하는 철수는 발에 땀이 나게 뛰었다.
㉣ 이 책은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

① ㉠과 ㉡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②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④ ㉡과 ㉣은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⑤ ㉢과 ㉣에는 모두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A092~A093

201806평가원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으)ㅁ'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ㅁ'과 명사형 전성 어미 '-(으)ㅁ'의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A]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반면 ㉠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 등을 수식한다.

한편 이들 '-(으)ㅁ'과 '-이'가 중세 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 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으)ㅁ'은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ᄋᆞ/으)ㅁ'과 명사형 전성 어미 '-옴/움'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ᄒᆞᆫ 거름 나소 거룸(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에서 확인된다. '걷-'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ᄋᆞ)ㅁ'과 '-옴'이 각각 결합한다.

앞서 말한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ᄋᆡ /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나못 노핏(나무의 높이)'와 '노피 ᄂᆞᄂᆞᆫ 져비(높이 나는 제비)'에서 확인된다.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다. 그런데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이'가 결합한다.

A092

201806평가원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됴ᄒᆞᆫ 여름 여루미(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과 '여룸'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의 품사가 다르겠군.

② '거름'과 '거룸'의 형태를 보니, '거름'은 파생 명사이고 '거룸'은 동사의 명사형이겠군.

③ '거룸'과 '노ᄑᆡ'의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 국어 '높-'에는 '-움'이 아니고 '-옴'이 결합하겠군.

④ '노ᄑᆡ'와 '노피'의 형태를 보니, '노ᄑᆡ'는 파생 부사이고 '노피'는 파생 명사이겠군.

⑤ 중세 국어의 형용사 '곧다', '굳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군.

A093

201806평가원1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것은?

① • 많이 앎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② • 멸치 볶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③ •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 무용수들이 군무를 춤과 동시에 조명이 켜졌다.

④ •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 일은 맡기고 싶지 않다.

⑤ •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A094

201806평가원13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는 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고유어+고유어
-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고유어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남.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뀜.

㉠~㉤ 각각의 쌍은 위 조건 ⓐ~ⓓ 중 1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이다.

	사이사옷이 없는 단어	사이사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모대까격]	도맷값[도매깝]
㉡	전세방[전세빵]	아랫방[아래빵]
㉢	버섯국[버섣꾹]	조갯국[조개꾹]
㉣	인사말[인사말]	존댓말[존댄말]
㉤	나무껍질[나무껍찔]	나뭇가지[가무까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A095

201806평가원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탐구 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에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

- **탐구 자료**

	비표준 발음	표준 발음
㉠ 긁는	[글른]	[긍는]
㉡ 짧네	[짬네]	[짤레]
㉢ 끊기고	[끈기고]	[끈키고]
㉣ 뚫지	[뚤찌]	[뚤치]

- **탐구 내용**

㉠의 비표준 발음과 ㉡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후 (ⓐ)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과 ㉡의 비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과 ㉣의 표준 발음은 (ⓒ)만 일어난 발음이다.

	ⓐ	ⓑ	ⓒ
①	유음화	비음화	거센소리되기
②	유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③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④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⑤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A096

201806평가원15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어말 어미 '-더-'는 시간 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 같이 ㉠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단, ㉣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 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① ㉠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② ㉡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③ ㉢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밉더냐?
④ ㉣ :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
⑤ ㉤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A097~A098

201807사관학교11~12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감탄문은 감동·응답·부름·놀람 따위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함께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어미의 형태에 따라 '구나' 형 감탄문과 '어라' 형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구나' 형 감탄문은 감탄문의 일반적 유형인데,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는)구나, -(는)구먼, -(는)구려, -군, -네'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이에 비해 '어라' 형 감탄문은 형용사의 어간에 종결 어미인 '-아라/-어라/-여라'가 붙어서 실현된다. 감탄문은 다른 문장 성분 없이 독립어와 서술어만으로 실현될 수 있다. '구나' 형 감탄문의 높임 표현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는데, 격식체에는 '해라체'의 '-(는)구나', 하게체의 '-(는)구먼', 하오체의 '-(는)구려' 등이 쓰이고, 비격식체에는 '해체'의 '-군, -네' 등이 쓰인다.

한편 중세 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와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에 감탄형 종결 어미인 '-ㄴ뎌, -ㄹ쎠/-ㄹ셔' 등이 붙어서 실현되고, 후자는 선어말 어미인 '-도-/-돗-/-옷-'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도-'는 '-다' 앞에서 쓰인 '-돗-'의 이형태이다.

ㄱ. 됴홀쎠 오ᄂᆞᆳ날 果報ㅣ여
(좋구나 오늘날의 과보여) [월석 23:82]
ㄴ. 이 男子ㅣ精誠이 至極홀씨 보ᄇᆡ를 아니 앗기놋다
(이 남자가 정성이 지극하므로 보배를 아니 아끼는구나) [월석 1:11]

ㄱ의 '됴홀쎠'는 '둏다'의 어간에 감탄형 어미 '-ㄹ쎠'가 붙어서 감탄이 실현된 것이고, ㄴ의 '앗기놋다'에서는 '-옷-'이 붙어서 감탄이 실현된 것이다.

A097

201807사관학교11

윗글을 바탕으로 '감탄문'에 대해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앗, 차가워라!'는 놀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함께 실현된 감탄문이다.
② '철수가 게를 잡는구나!'는 해라체에, '철수가 게를 잡는구려!'는 하오체에 해당한다.
③ '벌써 개나리가 피었네!'는 해체로 쓰이는 감탄형 어미 '-네'가 붙어서 실현된 감탄문이다.
④ '아, 시원해라!'는 다른 문장 성분 없이 독립어와 서술어만으로 감탄문이 실현된 문장이다.
⑤ '호박죽이 너무 뜨겁구나!'와 같은 '구나' 형 감탄문을 만들 수 있는 용언의 품사는 '어라' 형 감탄문에 비해 제한적이다.

A098

201807사관학교12

〈보기 2〉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의 ⓐ~ⓔ를 설명한 것이다. 〈보기 2〉의 ㄱ~ㄹ 중, 옳은 설명만을 골라 묶은 것은?

보기1

ⓐ 義ᄂᆞᆫ 그 큰뎌
(의는 그것이 크구나) [내훈 3:54]
ⓑ 摩耶ㅣ 如來ᄅᆞᆯ 나ᄊᆞᄫᆞ실쎠
(마야가 여래를 낳으셨구나) [석상 11:24]
ⓒ 새 그ᄅᆞᆯ 어제 브텨 보내돗더라
(새 글을 어제 부쳐 보내었더구나) [두언 23:29]
ⓓ 내 아ᄃᆞ리 어딜쎠
(내 아들이 어질구나) [월석 2:7]
ⓔ ᄠᅳ디 기프시도다
(뜻이 깊으시구나) [금삼 5:21]

보기2

ㄱ. ⓐ는 감탄형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된 감탄문이고, ⓑ는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된 감탄문이다.
ㄴ. ⓑ와 ⓓ를 통해 동사, 형용사가 감탄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와 ⓔ를 통해 감탄형 종결 어미가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ㄹ. ⓒ와 ⓔ를 비교해 보면 감탄문을 만드는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A099

201807사관학교13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관형사절에 대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생략된 관계절과 그렇지 않은 보문절로 나눌 수 있다. 관계절에서 안긴문장 속의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것은 그 성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피수식어인 체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앞에 종결 어미가 있는 긴 관형사절과 종결 어미가 없는 짧은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긴 관형사절과 짧은 관형사절은 서로 바꿔도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 경우와 바꾸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관형사절은 전체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① "네가 되려는 의사라는 직업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단다."
→ 주어가 생략된 짧은 관형사절로 이 절을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② "오늘에서야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
→ 종결 어미가 있는 관계절로 이 절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너는 개울에서 헤엄을 쳐 본 경험이 있니?"
→ 종결 어미가 없는 보문절로 긴 관형사절로 바꿔도 자연스럽다.

④ "나는 그때 네가 그렸다는 그림을 보았다."
→ 목적어가 생략된 긴 관형사절로 이 절을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⑤ "그분이 노벨상을 타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 종결 어미가 있는 보문절로 짧은 관형사절로 바꿔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A100

201807사관학교14

〈보기〉는 모음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단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인접하면 모음들이 충돌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기도 하고, 선행 모음 'ㅡ'가 다른 단모음 앞에서 탈락하거나 선후행 모음이 동일할 때 한 모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또한, 두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하고, 두 단모음이 새로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되기도 한다.

① '파- + -아서 → [파서]'는 동일한 단모음 'ㅏ'와 'ㅏ' 중 하나가 탈락하였다.

② '비- + -어서 → [비여서]'는 단모음 'ㅣ'와 'ㅓ'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③ '쓰- + -이- + -어 → [쓰여]'는 'ㅡ'가 그대로 유지되고, 'ㅓ' 앞에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④ '바꾸- + -어라 → [바꿔라]'는 단모음 'ㅜ'가 반모음으로 교체된 다음 'ㅓ'와 결합하였다.

⑤ '보- + -이- + -어 → [뵈여]'는 'ㅗ'와 'ㅣ'가 단모음으로 축약되고, 'ㅓ' 앞에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A101

201807사관학교15

〈보기 1〉을 고려할 때, 〈보기 2〉의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1

절대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를 비교하여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일치하면 현재, 발화시가 앞서면 미래로 나눈다. 한편 상대 시제는 안은문장이나 주절의 사건시를 안긴문장이나 종속절의 사건시와 비교하여, 안긴문장이나 종속절의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일치하면 현재, 안은문장이나 주절의 사건시가 앞서면 미래로 나눈다.

보기2

ㄱ.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밥을 먹는다.
ㄴ. 내일 우체국 가는 길에 은행에 들르겠다.

① ㄱ의 '들으며'의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 ㄴ에서 '가는'의 절대 시제는 '들르겠다'의 절대 시제와 일치한다.

③ ㄱ의 '들으며'의 상대 시제와 ㄴ의 '가는'의 절대 시제는 모두 현재이다.

④ ㄱ의 '먹는다'의 '-는-'과 ㄴ의 '가는'의 '-는'은 모두 절대 시제가 현재임을 나타낸다.

⑤ ㄱ의 '들으며'의 '-으며'는 '들으며'의 사건시가 '먹는다'의 사건시보다 앞섬을 나타낸다.

A102

201807경찰대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영수는 웃으면서 다가오는 다희의 손을 잡았다.

② 이 샴푸는 두피 건강과 비듬에 좋은 제품입니다.

③ 동일 하자로 고장 발생 시 3회까지는 무료로 수리해 드립니다.

④ 체중 관리를 위해 주중에는 헬스를, 주말에는 북한산에 오른다.

⑤ 서울을 떠나 대전을 경유한 열차가 곧 우리 역에 도착되겠습니다.

A103

201807경찰대2

구어체를 문어체로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단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② 수많은 군중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 수많은 군중들이 무얼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③ 대통령하고 사무총장이랑 만나서 비밀리에 의제를 상정했다.
→ 대통령하고 사무총장이 만나서 비밀리에 의제를 상정했다.

④ 끼니때가 되면 식탐이 많은 그는 늘 자기가 먼저 먹을라고 했다.
→ 끼니때가 되면 식탐이 많은 그는 늘 자기가 먼저 먹을 려고 했다.

⑤ 김 과장은 최 대리보고 점심시간 전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 김 과장은 최 대리에게 점심시간 전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A104

201807경찰대3

〈보기〉를 바탕으로 모음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단모음 분류표]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① ‘그리고 > 그리구’에서의 모음 변동은 입술 모양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② ‘지팡이 > 지팽이’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③ ‘블 > 불’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와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변동이군.

④ ‘거죽 > 가죽’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높낮이와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변동이군.

⑤ ‘윗어른 > 웃어른’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와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변동이군.

A105

201807경찰대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맏이	마지	ⓒ___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걷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닫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끝이	끄치	ⓕ___	훑치다

① ⓐ는 모두 단어가 될 수 없는 형태소에 해당하는군.
② ⓑ와 ⓒ는 어근이 ⓐ와 결합하여 모두 새로운 품사로 바뀐 것이군.
③ ⓒ에 들어갈 어형은 접미사 '-이-'가 결합해 생긴 것이군.
④ ⓓ, ⓔ를 보니 선행 음절의 받침이 같아도 구개음은 다르게 실현되는군.
⑤ ⓕ에 들어갈 어형으로는 '홅히다'가 있군.

A106

201807경찰대5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형태소가 그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音相)이 달라지는 현상을 교체(交替)라고 하며, 교체를 통해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는 형식들 각각을 그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가령, '믿다'의 '믿-'의 경우, '믿고, 믿어'에서는 [믿-]으로 나타나나 '믿는다'에서는 [민-]으로 나타난다. 즉, '믿-'은 {믿-}과 {민-}을 그 이형태로 갖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값이, 값도, 값만'과 같은 경우의 '값'은 각각 {㉠, ㉡, ㉢}의 이형태를 갖는다.

	㉠	㉡	㉢
①	갑	갑	갑
②	갑	갑	감
③	갑	값	감
④	값	갑	감
⑤	값	감	갑

A107

201807경찰대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빨랫줄[빨래쭐/빨랟쭐]
㉡	빨래집게[빨래집께]
㉢	빨래터[빨래터]

※ [ ]는 표준 발음법에 따른 발음임.

① ㉠, ㉡, ㉢은 모두 복합어에 속한다.
② ㉠, ㉡, ㉢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앞의 요소가 뒤의 요소를 꾸민다.
③ ㉠, ㉡에는 사잇소리 현상으로 인한 경음화가 존재한다.
④ ㉠, ㉢을 이루는 각각의 직접 구성 요소들은 모두 어근이다.
⑤ ㉡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총수는 세 개다.

A108

201807경찰대7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문장이 아닌 것은?

보기

우리말의 명사형 어미 '-ㅁ/음'과 '-기'는 용언 어간에 붙어 그 용언이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파생 접미사 중에도 '-ㅁ/음'과 '-기'가 있어서 ㉠ 용언의 명사형과 파생명사가 같은 모양이 되어 그 둘을 혼동하기 쉽다.

① 자신을 믿음으로써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② 중임을 맡기기에는 아직 그가 젊음도 고려해야만 한다.
③ 영수는 선하게 웃음으로써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멋쩍게 했다.
④ 과묵한 그는 상대의 약점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색하지 않았다.
⑤ 남에게 진 신세에 대하여 적절한 갚음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A109

201807경찰대8

〈보기〉의 특성을 가진 단어가 사용된 문장만으로 짝지은 것은?

보기

가. 선행 용언과 연결되어 그 뜻을 보충한다.
나. 선행 용언의 어미는 대체로 '-아/어, -게, -지, -고'로 한정되나 '-ㄴ/은가, -ㄹ/을까, -(으)면' 등이 오기도 한다.

① •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 이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렴.
② • 공을 차다 장독을 깨 먹었다.
  •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잘 익혀 먹자.
③ • 막내 동생이 참 예쁘게 생겼다.
  • 한겨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구나.
④ •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말겠다.
⑤ •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A110

201807경찰대9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과 ㉡에 해당하는 〈자료〉의 용례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우리는 어떤 대상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말을 빌려서 표현하기도 한다. 가령, '손이 모자라다.'의 '손'은 ㉠ 대상의 일부로 그 전체를 나타낸 것이며, 우리 민족을 '흰옷'으로 표현한 것은 ㉡ 대상과 관련된 속성으로 그 대상 자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
가. 주전자가 끓는다.
나. 그 친구를 전화번호부 속에서 찾아냈다.
다. 그 대학에는 훌륭한 두뇌들이 모여 있다.
라. 이번 전국 대회에서는 우리 학교가 우승했다.
마. 당시 청년들은 군홧발에 짓밟히면서도 자유를 외쳤다.

	㉠	㉡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마
③	다	마
④	다, 마	가
⑤	라	나, 마

A111

201807경찰대11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곶 ㉡ 됴코 여름 하ᄂᆞ니 (제2장)
• 내히 이러 ㉢ 바ᄅᆞ래 가ᄂᆞ니 (제2장)
• ㉣ 狄人ㅅ서리예 ㉤ 가샤 (제4장)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① ㉠은 팔종성법이 철저하게 지켜진 예이다.
② ㉡은 축약을 통한 음절 수 감소가 발생한 예이다.
③ ㉢은 분철 표기가 준수된 예이다.
④ ㉣은 주격 조사로 'ㅅ'이 실현된 예이다.
⑤ ㉤은 동사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한 것이다.

A112~A113

201807인천11~12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는데, 어근이 두 개 이상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A] 합성어는 형성 방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따라 어근을 결합한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논밭',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굳은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스며들다' 등은 국어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열법으로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반면에 용언의 어간이 명사에 직접 결합한 '덮밥',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오르내리다' 등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없는 단어 배열법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어 합성법은 중세 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바ᄂᆞ실(바느실)',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져므니(젊은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니러셔다(일어서다)' 같은 통사적 합성어와 '빌먹다(빌어먹다)'와 같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가 그러한 예이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 '뛰다'와 '놀다'의 합성어 형태로는 비통사적으로 결합한 '뛰놀다' 하나만 확인되고 있는데 현대 국어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인 '뛰놀다'와 통사적 합성어인 '뛰어놀다'의 두 가지 합성어 형태가 모두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현대 국어에는 하나의 합성어 형태로만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는 두 가지 합성어 형태로 모두 쓰였던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A112

201807인천11

[A]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결합 방식	합성어의 종류
①	어깨동무	명사 + 명사	통사적 합성어
②	건널목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통사적 합성어
③	보살피다	용언의 연결형 + 용언의 어간	통사적 합성어
④	여닫다	용언의 어간 + 용언의 어간	비통사적 합성어
⑤	검버섯	용언의 어간 + 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A113

201807인천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합성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賈餘이 슬허 **눈므를** 내요ᄃᆡ <번역 소학>
[현대 국어] 가속이 슬퍼 눈물을 흘리되

(나) ᄒᆞᆯᄀᆡ 어울워 **즌흙골** 밍ᄀᆞ라 <능엄경언해>
[현대 국어] 흙에 어울러 진흙을 만들어

(다) 그듸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 <석보상절>
[현대 국어] 그대가 가서 알아듣게 말하라.

(라) 그지업슨 소리 世界예 **솟나디** 몯ᄒᆞ면 <월인석보>
[현대 국어] 끝이 없는 소리가 세계에 솟아나지 못하면

(마) 짜햐셔 **소사나신** … 菩薩 摩訶薩이 <석보상절>
[현대 국어] 땅에서 솟아나신 … 보살 마가살이

① (가)의 '눈믈'은 현대 국어의 '눈물'과 같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② (나)의 '즌흙'은 현대 국어의 '진흙'과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③ (다)의 '아라듣다'는 현대 국어의 '알아듣다'와 같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④ (라)의 '솟나다'는 현대 국어의 '솟아나다'와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⑤ (라), (마)를 보니 현대 국어의 '솟아나다'는 중세 국어에서 두 가지 합성어의 형태로 모두 쓰였다고 볼 수 있겠군.

A114

201807인천13

〈보기〉는 표준 발음법 중 '된소리되기'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간 받침 'ㄼ, ㄾ'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① '국밥'과 '(계란을) 삶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② '꽃다발'과 '(그릇을) 핥지만'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③ '(시를) 읊조리다'와 '(죽을) 먹을지언정'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④ '(바닥에) 앉을수록'과 '(몸을) 기댈 곳이'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⑤ '(살샅이) 훑다'와 '(내가) 떠날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A115

201807인천14

〈보기〉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

㉡ 나는 자전거를 {못 탄다 / 타지 못한다}.

㉢ 컴퓨터를 너무 오래하지 {*않아라 / *못해라 / 마라}.

㉣ 시간이 {*못 넉넉하다 / 넉넉하지 못하다}.

㉤ ┌ 그녀는 결코 거짓말을 {*했다 / 하지 않았다}.
   └ 그녀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 / 하지 않았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① ㉠을 보니, '못하다'는 앞말의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어 뒷말을 부정하기도 하는구나.

② ㉡을 보니,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부정 용언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는구나.

③ ㉢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서는 '않다'나 '못하다'가 아니라 '말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④ ㉣을 보니,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부정 부사 대신 부정 용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⑤ ㉤을 보니, 부사에 따라 반드시 부정 표현이 함께 쓰여야 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A116

201807인천15

〈보기〉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선생님 :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요. 이때,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습니다.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ㄹㄹ'은 'll'로 적지요.

그럼 아래의 표기 일람을 참고할 때, '독립문'과 '대관령'의 로마자 표기는 어떻게 될까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g, k	n	d, t	r, l	m	b, p	ng
ㅐ	ㅕ	ㅗ	ㅘ	ㅜ	ㅣ	
ae	yeo	o	wa	u	i	

독립문 대관령

① Dongnimmun – Daegwallyeong

② Dongnimmun – Daegwalryeong

③ Dongrimmun – Daegwallyeong

④ Dongrimmun – Daegwanryeong

⑤ Doknipmun – Daegwanryeong

A117~A118

201808전북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의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를 지칭한다.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누어진다. 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사이다. 격조사에는 주격 조사 '이, 가', 목적격 조사 '을, 를' 등이 있다. 보조사는 앞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다. 보조사에는 각각 '한정, 대조, 역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 는, 도' 등이 있다. 접속 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에는 주로 문어에서 사용되는 '와, 과' 그리고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는 '랑, 하고' 등이 있다.

한편, 중세 국어의 조사는 현대 국어에 비해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으며, 앞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었다.

첫째, 중세 국어의 격 조사는 현대 국어의 조사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는 앞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었다.

(가) 이, ㅣ, ∅(주격 조사 없음.)
(나) 이라, ㅣ라, ∅

(가)는 주격 조사이고, (나)는 서술격 조사이다. 서술격 조사는 형태상으로 볼 때에 주격 조사에 '라'가 붙은 것이다. '이'는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인 경우에 쓰이고, 'ㅣ'는 앞말의 끝소리가 'ㅣ' 이외의 모음인 경우에 쓰였다. '∅'은 앞말의 끝소리가 'ㅣ' 모음일 때 주격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이다.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앞말의 끝소리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선택되었다. 또한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기도 했다.

(가) 롤, 를, 올, 을
(나) ᄋᆡ, 의
(다) 로, ᄋᆞ로, 으로
(라) 애, 에, 예

(가)는 목적격 조사, (나)는 관형격 조사, ㈐는 도구의 부사격 조사, (라)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이다. 여기서 (가)의 '롤, 를', (다)의 '로'는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인 경우에 쓰였고, (가)의 '올, 을', (다)의 'ᄋᆞ로, 으로'는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인 경우에 쓰였다. 단, 앞말의 끝소리가 'ㄹ'인 경우에는 '로'가 쓰였다.

이와 달리 (가)의 '롤, 올', (다)의 'ᄋᆞ로'는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고, (가)의 '를, 을', (다)의 '으로'는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다.

한편 (나)의 'ᄋᆡ', (라)의 '애'는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고, (나)의 '의', (라)의 '에'는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다. (라)의 '예'는 체언의 모음이 중성 모음('ㅣ')인 경우에 쓰였다.

둘째, 보조사 역시 격 조사의 사용 방식과 유사하다. 즉, 대조의 의미를 지니는 보조사 'ᄂᆞᆫ, 는'은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인 경우에 쓰였고, 'ᄋᆞᆫ, 은'은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인 경우에 쓰였다. 이와 달리 'ᄂᆞᆫ, ᄋᆞᆫ'은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고, '는, 은'은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다.

셋째, 중세 국어의 접속 조사는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인 경우에 '와', 자음인 경우에 '과'가 사용되었다. 대체로 현대 국어의 접속 조사와 유사하지만 'ㄹ' 받침 아래에서 '와'가 쓰인 점이 다르다.

A117

201808전북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돌'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려면 주격 조사 '이'가 필요하겠군.

② '쑴'에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하려면 목적격 조사 '을'이 필요하겠군.

③ '도ᄌᆞᆨ'에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하려면 관형격 조사 'ᄋᆡ'가 필요하겠군.

④ '눈ㅅ믈'에 도구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부사격 조사 '으로'가 필요하겠군.

⑤ '굴허'에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부사격 조사 '에'가 필요하겠군.

A118

201808전북12

윗글을 읽은 후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 바ᄇᆞᆫ 사ᄅᆞᄆᆡ 야기라.
[현대어] 밥은 사람의 약이다.

ㄴ. 입시울와 혀와 엄과
[현대어]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① ㄱ의 '바ᄇᆞᆫ'에는 현대 국어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기능이 다른 조사가 사용되었다.

② ㄱ의 '사ᄅᆞᄆᆡ'에서 체언과 조사의 결합은 앞말의 받침의 유무에 따른 것이다.

③ ㄱ의 '야기라'에서 '약' 대신 '돌'이 오더라도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동일하다.

④ ㄴ의 '입시울와'에서 조사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앞말의 받침의 유무에 따른 것이다.

⑤ ㄱ과 ㄴ에 이미 소멸되어 현대 국어에서 형태를 찾을 수 없는 조사가 사용되었다.

A119

201808전북13

〈보기〉는 한글 맞춤법 조항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예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예) 깊이, 미닫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예) 걸음, 앎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예) ㉠_____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예) 밝히, 익히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예) ㉡_____
2. 명사로 된 것 (예) 바둑이

	㉠	㉡
①	같이	몫몫이
②	굳이	곳곳이
③	실없이	앞앞이
④	낱낱이	삼발이
⑤	짓궂이	집집이

A120

201808전북14

〈보기〉의 선생님 설명을 바탕으로 A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 우리말은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겹받침이 올 경우 겹받침 'ㄳ', 'ㄵ', 'ㄻ,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겹받침 'ㄺ, ㄻ, ㅀ'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또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데,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리고 받침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ㅟ'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데,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A. 넋과, 앉다, 흙과, 읊고, 앉아, 닭을, 핥아, 값을, 값어치, 닭 앞에

① '넋과'는 [넉꽈]로, '앉다'는 [안따]로 발음해야겠군.
② '흙과'는 [흑꽈]로, '읊고'는 [읍꼬]로 발음해야겠군.
③ '앉아'는 [안자]로, '닭을'은 [달글]로 발음해야겠군.
④ '핥아'는 [할타]로, '값을'은 [갑슬]로 발음해야겠군.
⑤ '값어치'는 [가버치]로, '닭 앞에'는 [다가페]로 발음해야겠군.

A121

201808전북15

〈보기〉를 참고하여 A~C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끼리 골라 묶은 것은?

보기

시제란 화자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아 시간을 구분하는 문법 범주이다. 발화시란 화자가 문장을 발화한 시간을, 사건시란 문장에 드러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뜻하는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시제를 판단한 것을 절대 시제, 전체 문장의 사건시에 기대어 시제를 판단한 것을 상대 시제라고 한다.

A.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B. 나는 어제 처음으로 꾀꼬리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C. 현아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었다.

ㄱ. A의 '어제', B의 '어제'는 각각 A의 '나'와 B의 '나'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선행함을 알려주는 표지가 된다.
ㄴ. A의 '청소하시는', B의 '우는', C의 '들으면서'는 모두 절대 시제로는 과거에 해당한다.
ㄷ. A의 '청소하시는', B의 '우는', C의 '들으면서'는 각각 '도와드렸다', '들었다', '추었다'라는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시제로는 현재에 해당한다.
ㄹ. C의 '들으면서'는 '추었다'는 사건에 대한 기준이 되어 문장의 사건이 발화시보다 나중에 일어날 것을 알려 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122~A123

201809평가원11~12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 한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형태'는 단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고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의미'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 부류가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적용하여 ㉠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 등으로 개별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A]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에는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의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의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 양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선어말어미 '-ㄴ/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청유형 종결 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등과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다만, '있다'의 경우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한 장소에 머묾'의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분류 되는데, 동사 '있다'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 준다.

A122

201809평가원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① '옛날, 사진, 기억'은 ㉠에 해당하고 명사이다.
② '보니, 떠올랐다'는 ㉡에 해당하고 동사이다.
③ '하나'는 ㉢에 해당하고 수사이다.
④ '을, 가'는 ㉣에 해당하고 조사이다.
⑤ '즐거운'은 ㉤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A123

201809평가원12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영희가 밥을 먹었다. / 꽃이 예뻤다.
- 영희가 밥을 먹는다. / 꽃이 예쁜다(*).

ⓑ
- 영희야, 밥 먹어라. / 영희야, 좀 예뻐라(*).
- 영희야, 밥 먹자. / 우리 좀 예쁘자(*).

ⓒ
- 밥 먹으려고 식당으로 갔다. / 예쁘려고 미용실에 갔다(*).
-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 / 예쁘러 미용실에 갔다(*).

ⓓ
- 나에게는 돈이 있다. / 돈이 있는 사람
- 나에게는 돈이 없다. / 돈이 없는 사람

ⓔ
- 나무가 크다. / 나무가 쑥쑥 큰다.
- 머리카락이 길다. / 머리카락이 잘 긴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① ⓐ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② ⓑ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명령형·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③ ⓒ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④ ⓓ :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로 쓰이고 있다.
⑤ ⓔ : '크다'와 '길다'는 형용사, 동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

A124

201809평가원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로마자 표기 한글 대조표>

자음		ㄱ	ㄷ	ㅂ	ㄸ	ㄴ	ㅁ	ㅇ	ㅈ	ㅊ	ㅌ	ㅎ
표기	모음 앞	g	d	b	tt	n	m	ng	j	ch	t	h
	그 외	k	t	p								

모음	ㅏ	ㅐ	ㅗ	ㅣ
표기	a	ae	o	i

<로마자 표기의 예>

	한글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	같이	[가치]	gachi
㉡	잡다	[잡따]	japda
㉢	놓지	[노치]	nochi
㉣	맨입	[맨닙]	maennip
㉤	백미	[뱅미]	baengmi

①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②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삭제[삭쩨]'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③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닳아[다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④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한여름[한녀름]'에서도 일어 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⑤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밥물[밤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A125

201809평가원14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 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어간 말음 조건	형태	용례
'ㄱ, ㅂ, ㅅ, ㅎ'일 때	-숩-	돕숩고
'ㄷ, ㅈ, ㅊ'일 때	-줍-	묻줍고
모음이나 'ㄴ, ㅁ, ㄹ'일 때	-습-	보습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슳-, -즣-, -슣-'으로 실현 되었다.

- 아래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이다.
  - 王(왕)이 부텻긔 더옥 敬信(경신)ᄒᆞᆫ ᄆᆞᅀᆞᆯ 내ᅀᆞ바
    (왕이 부처께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 어간 '듣-'과 어미 '-ᄋᆞ며'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했다.
  - 내 아래브터 부텻긔 이런 마ᄅᆞᆯ 몯 (㉡)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으며)

㉠ - ㉡

① 王(왕) - 듣ᄌᆞᄫᆞ며
② 王(왕) - 듣ᅀᆞᄫᆞ며
③ 부텨 - 듣ᄌᆞᄫᆞ며
④ 부텨 - 듣ᄌᆞᄫᆞ며
⑤ ᄆᆞᅀᆞᆷ - 듣ᅀᆞᄫᆞ며

A126

201809평가원15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 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없음
②	㉡	명사절	없음
③	㉢	명사절	주어
④	㉣	관형절	부사어
⑤	㉤	관형절	목적어

A127

201810서울11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놓고[노코], 낳던[나:턴], 쌓지[싸치]
ⓑ 닿소[다:쏘], 좋소[조:쏘]
ⓒ 놓는[논는], 쌓네[싼네]
ⓓ 않는[안는], 많네[만:네]
ⓔ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①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이 오는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나는군.
②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ㅅ'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군.
③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나는군.
④ ⓓ를 보니, 받침 'ㄶ'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군.
⑤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군.

① ㉮ (풀을) 깎다 → (풀이) 깎이다
㉯ (발을) 밟다 → (발이) 밟히다
② ㉮ (풀을) 깎다 → (풀이) 깎이다
㉯ (불이) 밝다 → (불을) 밝히다
③ ㉮ (방이) 넓다 → (방을) 넓히다
㉯ (책을) 팔다 → (책이) 팔리다
④ ㉮ (방이) 넓다 → (방을) 넓히다
㉯ (굽이) 높다 → (굽을) 높이다
⑤ ㉮ (음이) 낮다 → (음을) 낮추다
㉯ (문을) 밀다 → (문을) 밀치다

A128

201810서울12

〈보기〉에 제시된 ㉮와 ㉯의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문장에 사용된 어떤 단어가 파생어로 바뀌면 그 파생어로 인해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형용사 '괴롭다'는 동사 '괴롭히다'로 파생된다. 또한 '마음이 괴롭다.'의 '괴롭다'를 '괴롭히다'로 바꾸면 '마음을 괴롭히다.'와 같이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품사	문장 구조	
○	○	····· ㉮
○	×	
×	○	····· ㉯
×	×	

(○: 달라짐. ×: 달라지지 않음.)

A129

201810서울13

〈보기〉의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결석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 할 지 모르는 나에게 승호는 필기한 공책을 ㉡ 주고 갔다. 승호는 역시 듬직한 ㉢ 형같다. 이제 내가 심혈을 ㉣ 기울일것은 ㉤ 공부뿐이다.

① ㉠: '-ㄹ지'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한다.
② ㉡: '갔다'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주고'와 '갔다'를 붙여 '주고갔다'로 수정한다.
③ ㉢: '같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과 띄어 '형 같다'로 수정한다.
④ ㉣: '것'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기울일'과 띄어 '기울일 것'으로 수정한다.
⑤ ㉤: '뿐'이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공부'와 붙여 '공부뿐이다'로 수정한다.

A130~A131

201810서울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에서는 주체나 객체로 표현되는 인물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 대개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현대 국어의 간접 높임에서처럼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임으로써 실제 높여야 할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하였다.

(1) 太子(태자)ㅣ 東門(동문) 밧긔 나가시니
(태자께서 동문 밖에 나가시니)
(2) 부텻 누니 비록 불ᄀᆞ시나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1)의 '-시-'와 (2)의 '-ㅇᆞ시-'는 모두 현대 국어의 '-(으)시-'처럼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1)과 (2)에 쓰인 '-(ㅇᆞ)시-'의 쓰임에는 차이가 있다. 즉 (1)에서는 주체인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2)에서는 '부텨'의 신체 부분인 '눈'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텨'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모시다', '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활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였다.

(3) 너희 스승을 보ᄉᆞᆸ고져 ᄒᆞ노니
(너희 스승을 뵙고자 하나니)
(4) 부텻 敎化(교화)를 돕ᄉᆞᆸ고
(부처의 교화를 돕고)

(3)의 '-ᄉᆞᆸ-'과 (4)의 '-ㅅᆞㅂ-'은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3)과 (4)는 모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이느냐 간접적으로 높이느냐에 차이가 있다. 즉 (3)에서 '-ᄉᆞᆸ-'은 객체인 '스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비해, (4)에서 '-ㅅᆞㅂ-'은 '敎化(교화)'를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텨'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A130

201810서울14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ㄱ~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王(왕)ㅅ 일후믄 濕波(습파)ㅣ 러시니
(왕의 이름은 습파ㅣ이시더니)
ㄴ. 님긊 恩私(은사)를 갑ᄉᆞᆸ고져
(임금의 은사를 갚고자)
ㄷ. 龍王(용왕)이 世尊(세존)을 보ᄉᆞᆸ고
(용왕이 세존을 뵙고)
ㄹ. 太子(태자)ㅣ 講堂(강당)애 모도시니
(태자께서 강당에 모으시니)
ㅁ. 諸佛(제불)을 供養(공양)ᄒᆞᄉᆞᆸ게 ᄒᆞ쇼셔
(제불을 공양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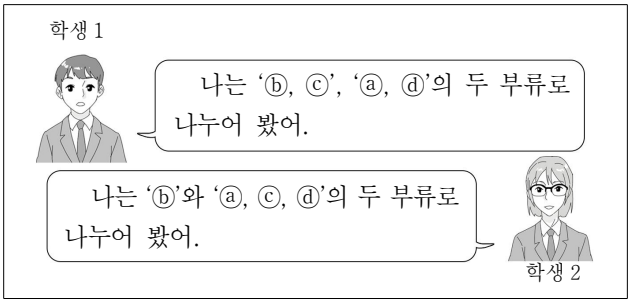
① ㄱ에서는 '-시-'를 통해 '일홈'을 높임으로써 '王(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② ㄴ에서는 '-ㅅᆞㅂ-'을 통해 '恩私(은사)'를 높임으로써 '님금'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③ ㄷ에서는 '-ᄉᆞᆸ-'을 통해 '世尊(세존)'을 높임으로써 '龍王(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④ ㄹ에서는 '-시-'를 통해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⑤ ㅁ에서는 '-ᄉᆞᆸ-'을 통해 '諸佛(제불)'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A131

201810서울15

다음은 윗글과 관련된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학생 2'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활동] 문맥을 고려하여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시오.
- 우리 할아버지의 치아는 여전히 ⓐ 튼튼하시다.
- 언니가 고모님을 공손하게 안방으로 ⓑ 모시다.
- 아버지께서는 저녁거리를 사러 장에 ⓒ 가시다.
- 형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생각이 ⓓ 타당하시다.



① 소유물을 높인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② 높임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가의 여부
③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
④ 신체 부분을 높인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활용되는가의 여부

A132~A133

201811전북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며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또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하며,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 중에는 같은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주위 환경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달라진 한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이형태'라고 한다. 이형태는 음운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음운론적 이형태는 주격 조사 '이/가', 명령 또는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라/-아라'와 같이 앞말의 받침 유무나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와 같은 음운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이형태를 뜻한다. 한편 '먹었다'의 '-었-'과 '하였다' 의 '-였-'은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그 형태는 서로 다르며, 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중세 국어에서도 격 조사 등에서 이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주격 조사 '이'는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ㅣ'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 모음 'ㅣ'나 반모음 'j' 뒤에서는 '∅(zero)'의 세 가지 형태로 실현되었다. 목적격 조사는 선행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올/을',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롤/를/ᄅᆞᆯ'의 형태로 실현되었는데 '올/을'과 '롤/를'의 사용은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의해 결정되었다. 앞말의 모음이 'ㅣ'로 끝날 경우에는 양성에 붙는 목적격 조사가 쓰였다. 또한 관형격 조사는 'ᄋᆡ/의, ㅅ'이 사용되었는데, 'ᄋᆡ/의'가 평칭의 유정 명사에서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반면, 'ㅅ'은 앞말의 음운 환경과 상관없이 무정명사나 높임의 유정 명사에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A132

201811전북11

윗글을 바탕으로 ㉠, ㉡의 형태소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는 산으로 가서 별을 보았다.
㉡: 형은 나와 함께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먹었다.

① ㉠의 형태소 개수는 11개이다.
② ㉡의 자립 형태소 개수는 의존 형태소 개수보다 적다.
③ ㉡의 실질 형태소 개수는 ㉠의 실질 형태소 개수보다 3개 많다.
④ ㉠의 '으로'와 ㉡의 '로'는 앞말의 음운 환경의 차이로 인해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⑤ ㉠의 '-았-'과 ㉡의 '-었-'은 문법적 기능이 같음에도 형태가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A133

201811전북12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내 이ᄅᆞᆯ 위ᄒᆞ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나) 부텻 舍利ᄅᆞᆯ 뫼셔다가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부처의 사리를 모셔다가)
(다) 하ᄂᆞᆳ 벼리 눈 ᄀᆞᆮ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라) 賈餘이 슬허 눈므를 내요ᄃᆡ <번역 소학>
(현대어 풀이: 가속이 슬퍼 눈물을 흘리되)
(마) 父母ㅣ 아ᄃᆞᆯᄋᆡ 마ᄅᆞᆯ 드르샤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① (가)의 '내'에 사용된 주격 조사와 (마)의 '父母ㅣ'에 사용된 주격 조사의 형태가 같은 것은 앞말이 모두 'ㅣ'나 반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이겠군.
② (가)의 '이ᄅᆞᆯ'에 사용된 목적격 조사와 (나)의 '舍利ᄅᆞᆯ'에 사용된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같은 것은 앞말이 모두 'ㅣ'로 끝났기 때문이겠군.
③ (나)의 '부텻'에 사용된 관형격 조사가 (마)의 '아ᄃᆞᆯᄋᆡ'에 사용된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다른 것은 앞말이 높임의 유정 명사이기 때문이겠군.
④ (다)의 '벼리'에 사용된 주격 조사가 (라)의 '賈餘이'에 사용된 주격 조사와 형태가 다른 것은 앞말이 반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이겠군.
⑤ (라)의 '눈므를'에 사용된 목적격 조사가 (마)의 '마ᄅᆞᆯ'에 사용된 목적격조사와 형태가 다른 것은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에 해당하기 때문이겠군.

A134

201811전북13

〈보기〉의 음운 변동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긁는 → [긍는]
㉡ 삯일 → [상닐]
㉢ 핥이다 → [할치다]
㉣ 옷맵시 → [온맵씨]

① ㉠, ㉡은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다.
② ㉠,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다.
③ ㉡,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④ ㉡, ㉣은 각각 3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⑤ ㉢, ㉣은 모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A135

201811전북1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ㄱ. 그녀는 솜씨가 훌륭하다.
ㄴ. 이 사과는 내가 내일 먹을 간식이야.
ㄷ. 나는 그가 정직함을 뒤늦게 깨달았다.
ㄹ. 그는 "내가 네게 사과할게."라고 하였다.
ㅁ. 우리는 아이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켰다.

① ㄱ은 특별한 표지 없이 안긴문장이 실현되고 있으며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② ㄴ의 안긴문장은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실현되고 있으며 주성분이 생략되어 있다.
③ ㄷ의 안긴문장은 명사형 어미가 붙어 실현되고 있으며 안은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④ ㄹ의 안긴문장은 보조사가 결합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안은문장의 주어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⑤ ㅁ의 안긴문장은 부사형 어미가 붙어 실현되고 있으며 ㅁ에서 안긴 문장을 생략해도 문장의 성립이 가능하다.

A136

201811전북15

다음 담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호영과 재호가 체육 대회 때 입을 단체복을 고르고 있다.)

호영 : 재호야, ㉠ 여기 좀 봐 볼래?
재호 : (호영을 바라보다가) ㉡ 그거는 좀 튀지 않아? ㉢ 아무도 소화하지 못할 것 같은데.
호영 : 너는 꼭 내 의견에 딴지를 걸더라.
재호 : ㉣ 우리 호영이가 왜 화가 났을까? 나는 내 의견을 말한 것뿐 이야.
호영 : 이번에는 내 의견에 따라 줬으면 좋겠어.
재호 : 알았어. 체육 대회가 정확히 ㉤ 언제지? 늦지 않게 배송됐으 면 좋겠다.

① ㉠은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② ㉡은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③ ㉢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대명사이다.
④ ㉣은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⑤ ㉤은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A137

201811대구11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을 발음하려고 한다. 옳은 것을 찾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1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앞 음절의 종성을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한다. 다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 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9항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 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ㄺ', 'ㄻ', 'ㄼ' 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ㄺ' 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보기2

- 줄 ㉠ 끝을 잡아당겼다.
- 하늘이 금세 ㉡ 맑게 개었다.
- ㉢ 부엌 안으로 고양이가 들어왔다.

㉠ ㉡ ㉢

① [끄틀], [말께], [부어간]
② [끄틀], [막께], [부어칸]
③ [끄츨], [막께], [부어간]
④ [끄츨], [말께], [부어칸]
⑤ [끄츨], [말께], [부어간]

A138

201811대구12

〈보기〉의 내용에 추가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단어 중에는 하나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1)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2) 축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다.

위의 두 예문에서 (1)의 '다섯'은 수사이지만, (2)의 '다섯'은 관형사이다.

① • 나는 그 공연을 정말로 보고 싶었다.
  • 할머니는 돋보기로 신문을 보았다.
② • 농작물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잘 큰다.
  • 은규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다.
③ •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 그는 다른 곳에서 자라서 이곳을 잘 모른다.
④ • 그는 아이를 보살피며 매일을 보냈다.
  • 예민한 그 여자는 매일 밤잠을 설쳤다.
⑤ • 삼촌은 풍선을 터질 만큼 크게 불었다.
  • 삼촌은 풍선을 농구공만큼 크게 불었다.

A139

201811대구13

〈보기〉의 담화 상황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창민 : ㉠ 이 책을 우리 동아리에서 '이달의 책'으로 정해서 읽는 것이 어떨까?

화연 : 글쎄……, ㉡ 그 책은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어렵다는 평이 있더라고. 이 책은 어때?

창민 : ㉢ 어제 이 책을 읽었는데 다소 어렵긴 하더라구. 그럼, 네가 말한 책을 '이달의 책'으로 정할까?

화연 : ㉣ 그게 좋겠는데, ㉤ 우리끼리 정할 수는 없어. 다혜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

창민 : 어쨌든 책이 정해지면 ㉥ 내일부터 읽기 시작해야겠네. 다혜에게 전화해 봐야겠다. (다혜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하며) 다혜야, 어디쯤 ㉦ 오고 있니? ㉧ 우리 약속을 잊은 건 아니지?

다혜 : (통화하며) 미안. 지금 ㉨ 가고 있어. 곧 도착할 거야.

화연 : (걱정스러운 말투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전에는 ㉩ 이런 일이 없었잖아.

① ㉠과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다.
②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표현이다.
③ ㉣과 ㉩은 대상에 대한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서로 동일하지 않은 표현이다.
⑤ ㉦과 ㉨은 동일한 행위지만, 발화자에 따라 달라진 표현이다.

A140~A141

201811대구14~15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는 다르게 일부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먼저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경우 체언의 끝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덧생기는 것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구멍을 뜻하는 중세어 '구무'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구무+ㅣ→ 굼기'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ㅜ'가 탈락하고 'ㅁ'이 앞 음절의 받침이 된다. 그리고 'ㄱ'이 덧생겨 주격 조사 '이'에 연음이 된다. 그러나 공동의 부사격 조사 '와'와 결합할 때는 예외적으로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중세 국어의 체언 중에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덧생기는 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부른다. 'ㅎ 종성 체언'은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할 경우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경우 'ㅎ'을 뒤따르는 모음에 연음한다. 또한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경우 끝소리인 'ㅎ'과 축약되어 'ㅋ'과 'ㅌ'으로 나타난다. 현대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은 '안+밖'이 '안팎'이 되는 것처럼 합성어를 만들 때 그 흔적이 나타나기도 한다.

A140

201811대구1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가온대 구빙ᄂᆞᆫ 곶긔 든 늘근 뇽이
(정철, 「성산별곡」 중에서)

[현대어 풀이]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① '굼'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면서 체언의 받침이 연음된 것이다.
② '굼'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긔'가 결합하면서 원래의 형태가 유지된 것이다.
③ '구무'에 관형격 조사 '긔'가 결합하면서 체언 끝 모음이 탈락한 것이다.
④ '구무+의'로 분석이 되며, '구무'가 공동의 부사격 조사 '와'와 결합할 때는 '굼과'가 된다.
⑤ '구무'에 처소의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하면서 체언 끝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덧생긴 것이다.

A141

201811대구1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대 국어에서도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형태가 달라지는 어휘가 있겠군.
② '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ㅎ'이 나타나겠군.
③ '안과 밖'에서 '안과'는 중세 국어에서는 '안콰'로 쓰지 않고 '안과'로 썼겠군.
④ '안+밖'이 '안팎'이 되는 과정에서 'ㅂ'이 'ㅍ'으로 바뀐 것은 음운의 교체 현상 때문이겠군.
⑤ '옳지 않다'가 [올치 안타]로 축약이 되는 현상은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군.

A143~A144

201811수능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ㄹ'로 끝나는 명사 '발', '솔', '이틀'이 ㉠ '발가락', ㉡ '소나무', ㉢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ㄹ'이 탈락 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ㄹ'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발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밠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밠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밠 엄지 가락(엄지발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밠 가락'은 현대 국어 '발가락[발까락]'이 되었다.

[A]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솔'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ㄹ'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솔'의 'ㄹ'이 탈락하였다.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틀'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틄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은 '이틄 밤', '이틄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틄 날'은 '이틋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ㄹ'이 탈락한 합성어 '이틋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틋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뭀 사ᄅᆞᆷ'에서 온 '뭇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A143

201811수능12

윗글을 참고할 때, ㉠~㉢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보기

- 무술(물+술)
- 낟알(낟+알)
- 섣달(설+달)
- 쌀가루(쌀+가루)
- 솔방울(솔+방울)
- 푸나무(풀+나무)

① 솔방울, 무술, 낟알
② 솔방울, 푸나무, 섣달
③ 푸나무, 무술, 섣달
④ 쌀가루, 푸나무, 낟알
⑤ 쌀가루, 솔방울, 섣달

A144

201811수능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탐구 주제]

'숟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ㄷ'일까?

[자료]

중세 국어의 예

- 술 자ᄇᆞ며 져 놀ᄂᆞ니(숟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숤 긑(숟가락의 끝), 졋 가락 긑(젓가락 끝), 수져(수저)
- 물(무리), 뭀 사ᄅᆞᆷ(뭇사람, 여러 사람)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 숫가락 장ᄉᆞ(숟가락 장사) • 뭇사ᄅᆞᆷ (뭇사람)	• *술로 밥을 뜨다 •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 • 밥 한 술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① 중세 국어 '술'과 '져'는 중세 국어 '이틀'처럼 자립 명사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술'과는 차이가 있군.
② 중세 국어 '술'과 '져'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 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③ 중세 국어 '술'과 '져'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틀'이나 '물'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할 수 있었군.
④ 근대 국어 '숫가락'이 현대 국어에 와서 '숟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⑤ 현대 국어 '숟가락'과 '뭇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숤'과 '뭀'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군.

A145

201811수능14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① ⓐ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② ⓑ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③ ⓒ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④ ⓐ의 '좋은'과 ⓒ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⑤ ⓑ의 '눈이 부시게'와 ⓒ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A146

201811수능15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와 예문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약속 날짜를 너무 <u>밭게</u> 잡았다.
㉡ 서로 <u>밭게</u> 앉아 더위를 참기 어려웠다.
㉢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출 기한을 너무 <u>바투</u> 잡았다.
㉣ 어머니는 아들에게 <u>바투</u> 다가가 두 손을 움켜쥐었다.

ⓐ

1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 ⓑ
2.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

밭다 (형용사)
1.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
¶ ⓒ
2. 길이가 매우 짧다.
¶ 새로 산 바지가 **밭아** 발목이 다 보인다.
3.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
¶ 우리 아들은 입이 너무 **밭아서** 큰일이야.
⋮

	ⓐ	ⓑ	ⓒ
①	밭게(부사)	㉠	㉡
②	밭게(부사)	㉡	㉢
③	밭게(부사)	㉡	㉣
④	바투(부사)	㉢	㉠
⑤	바투(부사)	㉣	㉠

A142

201811수능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 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 혀의 높이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 중 ㉠ 을 확인할 수 있군.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⑤ 4개의 후설 모음

A147~A148

201903서울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ㄱ, ㄷ, ㅂ'으로 교체되고, ㉡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 이렇게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ㄷ, ㅌ'이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용언 어간 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다. ㉣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과 'ㄱ, ㄷ, ㅈ'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데 이를 통해 용언 어간 말음 'ㅎ'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A] 연음과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 국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는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 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돓(돌)', '나랗(나라)'와 같이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 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나라히'와 같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ㅎ'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체언이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아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 구별되지 않았다.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자리에 쓰인 사례를 검토해야 체언 말음 'ㅎ'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

A147

201903서울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한몫[한목]'을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② '놓기[노키]'를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③ '끊지[끌치]'를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④ '값할[가팔]'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⑤ '맞힌[마친]'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A148

201903서울12

[A]를 참조하여 〈보기〉의 ⓐ~ⓔ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습 목표]

중세 국어 자료를 통해 체언 '하늘ᄒᆞ'에 대해 탐구한다.

[중세 국어 자료]

- ⓐ 하ᄂᆞᆯ히 ᄆᆞᅀᆞᆷᄆᆞᆯ 뮈우시니 (하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
- ⓑ 하ᄂᆞᆯ 光明中에 드러 (하늘의 광명 가운데에 들어)
- ⓒ 하ᄂᆞᆯ 셤기ᄉᆞᆸ듯 ᄒᆞ야 (하늘 섬기듯 하여)
- ⓓ 하ᄂᆞᆯ토 뮈며 (하늘도 움직이며)
- ⓔ 하ᄂᆞᆯ콰 ᄯᅡ콰ᄅᆞᆯ 니르니라 (하늘과 땅을 이르니라)

① ⓐ에서는 연음되어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지만, ⓓ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는 'ㅎ'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③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없다.
④ ⓑ와 ⓒ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서로 다른 형태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와 ⓔ에서 체언에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토', '콰'가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A149

201903서울13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 ㉡, ㉢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자료]

-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
-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
-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

①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②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③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④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학습지]

각 질문에 대해 '예'는 ○, '아니요'는 ×로 표시하시오.

질문	-ㄴ-	-ㄴ [1]	-ㄴ [2]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	×	×	㉠
어미 '-(으)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	○	○	㉡
어간에 붙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가?	×	○	○	㉢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	×	○	㉣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를 추가할 수 있는가?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A150

201903서울14

사전 자료의 일부인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쓰임을 탐구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ㄴ- 「어미」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ㄴ 「어미」

1.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이것은 털실로 짠 옷이다.
2.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누나는 유명한 성악가이다.

A151

201903서울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다.
㉰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① ㉮는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한 개 있다.
② ㉮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④ ㉰는 ㉮와 달리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⑤ ㉯와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A152~A153

201904경기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이형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해야 한다. '이'와 '가'는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하다. 하지만 의미의 동일성만으로는 이형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각각의 형태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면 이형태인지를 알 수 있다. 주격 조사 '이'는 자음 뒤에만 나타나고 주격 조사 '가'는 모음 뒤에만 나타나므로, 이 두 형태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가'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형태 관계에 있다. 이형태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막았다'의 '-았-'과 '먹었다'의 '-었-'은 앞말 모음의 성질이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이와 달리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형태를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하였다'의 '-였-'은 '하-'라는 특정 형태소와 어울려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였-'은 '-았- / -었-'과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에 있다.

이형태는 중세 국어에서도 나타났는데 현대 국어와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에'는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이형태가 존재했다.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애'가, 음성 모음일 때는 '에'가, 단모음 '이' 또는 반모음 'ㅣ'일 때는 '예'가 사용되었다.

A152

201904경기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이 사과<u>는</u>(㉠) 민수<u>한테</u>(㉡) 주는 선물이다.
- 네 일<u>은</u>(㉢) 네가 알아서 하<u>여라</u>(㉣).
- 영수<u>야</u>(㉤) 내 손을 꼭 잡<u>아라</u>(㉥).
- 영숙<u>아</u>(㉦) 민수<u>에게</u>(㉧) 책을 주<u>어라</u>(㉨).

① ㉠은 모음 뒤에만 나타나고 ㉢은 자음 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이 겹치지 않겠군.
② ㉡과 ㉧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형태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은 ㉥, ㉨과 비교했을 때, 특정 형태소와 어울려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형태라고 볼 수 있겠군.
④ ㉤과 ㉦은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로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이겠군.
⑤ ㉥과 ㉨은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겠군.

A153

201904경기1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탐구 자료**

  [중세 국어] 狄人(적인)ㅅ 서리(ⓐ) 가샤
  [현대 국어] 오랑캐들의 사이에 가시어

  [중세 국어] 世尊(세존)이 象頭山(상두산)(ⓑ) 가샤
  [현대 국어] 세존께서 상두산에 가시어

  [중세 국어] 九泉(구천)(ⓒ) 가려 하시니
  [현대 국어]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탐구 내용**

  ⓐ ~ ⓒ는 부사격 조사로,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 ~ ⓒ는 (ⓓ) 이형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	ⓒ	ⓓ
①	예	애	에	음운론적
②	예	에	애	형태론적
③	애	에	예	음운론적
④	애	예	에	형태론적
⑤	에	애	예	음운론적

A154

201904경기13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오늘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서술어 자릿수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문장들을 살펴봅시다.

㉠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았다.
㉡ 아이들이 얼음을 빠르게 녹였다.
㉢ 사람들은 산을 멀리서 보았다.
㉣ 그 산이 잘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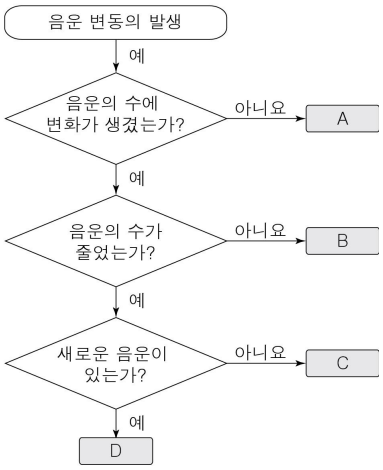
①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②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③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④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⑤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A155

201904경기14

〈보기 1〉의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1



보기2

- 그는 열심히 ㉠ 집안일을 했다.
- 그녀는 기분 ㉡ 좋은 웃음을 지었다.
- 그는 나에게 말을 하지 ㉢ 않고 떠났다.
- 세월이 화살과 ㉣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 집이 추워서 오래된 ㉤ 난로에 불을 지폈다.
-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 옮는 경우가 있다.

	A	B	C	D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A156

201904경기15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지1 「의존명사」
(어미 '-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지2 「어미」
「1」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그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않다', '못하다', '말다' 따위가 뒤따른다.
「2」 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3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서술, 의문, 명령, 제안 따위로 두루 쓰인다.

보기2

- 내일은 비가 오겠지(㉠)?
- 눈길을 걸은 지(㉡)도 꽤 오래되었지(㉢).
- 친구 사이는 대등한 관계이지(㉣) 종속 관계가 아니다.
-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① ㉠은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보기 1>의 '-지2「1」'에 해당하겠군.
② ㉡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1'에 해당하겠군.
③ ㉢은 '-었-' 뒤에 붙어 쓰인 종결 어미에 해당하므로 <보기 1>의 '-지3'에 해당하겠군.
④ ㉣은 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2「2」'에 해당하겠군.
⑤ ㉤은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고 '마시오'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2「1」'에 해당하겠군.

A158~A159

201905전북12~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용언의 끝자리에 들어가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에 들어간다.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어말 어미는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을 끝맺어 주는 어미이다. 연결 어미는 문장을 연결하는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가 있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있다. 전성 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또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어미로 명사형 전성 어미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등이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어미의 형태나 활용 양상이 현대 국어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명사형 전성 어미를 들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명사형 전성 어미로는 '-(으)ㅁ', '-기'가 쓰이지만, 중세 국어의 명사형 전성 어미로는 '-옴/-움'이 쓰였다. 그 구체적인 활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A] 일반적으로 용언 어간의 끝음절에 양성 모음이 왔을 때에는 '-옴'이, 음성 모음이 왔을 때에는 '-움'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막다'는 '마곰'으로, '먹다'는 '머굼'으로 각각 명사화되었다. 그런데 어간이 'ㆍ'나 'ㅡ'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 'ㆍ'와 'ㅡ'가 탈락된 후 '-옴/-움'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ᄐᆞ다(타다)'의 명사형이 '톰'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어간이 'ㅏ'나 'ㅗ' 또는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에는 '-옴/-움' 대신 'ㅁ'만 결합되었다. 이에 따라 '오다'의 명사형은 '오옴'이 아니라 '옴'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간의 끝음절이 중성 모음 'ㅣ'로 끝난 경우에는 '-옴'과 '-움'이 모두 사용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ㅣ'와 '-옴' 또는 '-움'이 축약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어간이 'ㅑ, ㅕ, ㅛ, ㅠ'를 제외한 'ㅣ(j)'계 이중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에는 명사형 어미 '-옴/-움'에 'ㅣ' 모음 순행 동화가 일어났다. 이는 중세 문헌에 'ᄀᆞᄅᆞ치다(가르치다)'의 명사형이 'ᄀᆞᄅᆞ츔'으로, '혜다(생각하다)'의 명사형이 '혜윰'으로 표기된 것을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다.

A158

201905전북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이 음식을 먹어 보았다.
(나) 피곤해서 불을 켠 채로 잠이 들었다.
(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로구나.
(라) 나도 너와 함께 음악을 듣고 싶다.
(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① (가): 어말 어미는 '먹어'의 '-어'와 '보았다'의 '-다'가 사용되었군.
② (나): 선어말 어미는 '들었다'의 '-었-'이 사용되었군.
③ (다): 종결 어미는 '아니로구나'의 '-로구나'가 사용되었군.
④ (라): 연결 어미는 '듣고'의 '-고'가 사용되었군.
⑤ (마): 전성 어미는 '준비하기가'의 '-기'와 '쉽지'의 '-지'가 사용되었군.

A159

201905전북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탐구 과제]

중세 국어에서 다음 단어의 명사형은 각각 무엇일지 알아보자.

•'밭다(뱉다)'의 어간 '밭-' •'혀다(켜다)'의 어간 '혀-' •'쓰다(쓰다)'의 어간 '쓰-' •'뽀다(쏘다)'의 어간 '뽀-' •'버히다(베다)'의 어간 '버히-'	+	'-옴/-움'

① '밭다'의 명사형은 '바톰'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② '혀다'의 명사형은 '혀윰'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③ '쓰다'의 명사형은 '쑴'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④ '뽀다'의 명사형은 '뽐'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⑤ '버히다'의 명사형은 '버흠' 또는 '버훔'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A160

21905전북14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저번 시간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 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을 배워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문장의 ㉠~㉤ 중에서 하나를 골라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말해 보고 이에 해당하는 다른 예를 두 개씩 들어 봅시다.

- 가뭄이 들어 ㉠ 고추밭이[고추바치] 모두 말랐다.
- 간식이 나와 아이들을 ㉡ 굶기지[굼기지] 않았다.
- 큰 집으로 이사한 후 나는 ㉢ 독방을[독빵을] 썼다.
- 우리 집은 ㉣ 맏누이가[만누이가] 가장 노릇을 한다.
- 그는 짐을 들고 가다가 균형을 ㉤ 잃고[일코] 넘어졌다.

학생: _____ [가] _____

① ㉠은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예로 '땀받이', '밝히다' 등이 있습니다.
③ ㉡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예로 '옮기다', '닮은꼴' 등이 있습니다.
③ ㉢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납니다. 다른 예로 '일컫다', '꿈같이' 등이 있습니다.
④ ㉣은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예로 '답안지', '속눈썹' 등이 있습니다.
⑤ ㉤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납니다. 다른 예로 '곱하다', '점잖다' 등이 있습니다.

A161

201905전북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만큼
[I] 「 ㉠ 」
1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
2 (주로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 _____ ㉡ _____.
[Ⅱ] 「조사」 (㉢ 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
¶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나도 당신만큼 할 수 있다.
유의어 ㉤

① ㉠에 들어갈 말은 '의존 명사'이다.
② ㉡에는 '검사가 까다로운 만큼 철저히 준비해.'가 들어갈 수 있다.
③ ㉢에 들어갈 말은 '체언'이다.
④ ㉣에 들어갈 말은 '보조사'이다.
⑤ ㉤에는 '만치'가 들어갈 수 있다.

A157

201905전북11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도라지꽃이 빛깔도 곱게 피었다.
ⓑ 동생이 색종이로 만든 쟁반을 어머니께 선물했다.
ⓒ 나는 어제 친구로부터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았다.

① ⓐ의 '곱게'와 '피었다'는 각각 다른 주어의 서술어이군.
② ⓑ의 '쟁반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③ ⓐ의 안긴문장은 서술어를, ⓑ의 안긴문장은 부사어를 수식하는군.
④ ⓐ의 '빛깔도'와 ⓒ의 '정성이'는 모두 안긴문장의 주어로군.
⑤ ⓑ의 '선물했다'와 ⓒ의 '받았다'는 모두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군.

A162~A163

201906평가원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르는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돼지도 흔한 가축인데,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 '가축과 그 새끼'를 나타내는 고유어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돼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을 뿐인데, 이렇게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어휘적 빈자리는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방식은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어떤 언어에는 '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는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지시하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외사촌을 지시할 때에는 '외삼촌의 자식'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킬 때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등으로 말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방식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용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무지개의 색채를 나타내는 현대 국어의 어휘 체계는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인데 이중 '빨강, 노랑, 파랑'은 고유어이지만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 '풀의 빛깔과 같이 푸른 빛을 약간 띤 녹색' 등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기 때문에 한자어 '주황(朱黃)'과 '초록(草綠)' 등이 쓰이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상의어로 하의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누이'는 원래 손위와 손아래를 모두 가리키는 단어인데, 손위를 의미하는 '누나'라는 단어는 따로 있으나 '손아래'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어서 상의어인 '누이'가 그대로 빈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의미 구별을 위해 손아래를 의미하는 '누이동생'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누이'는 상의어로도 쓰이고, 하의어로도 쓰인다.

A162

201906평가원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돝'이었고, '돝'에 '-아지'가 붙어 '돝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쓰였다. 그런데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돝'이 사라지고, '돝'의 자리를 '도야지'의 형태가 바뀐 '돼지'가 차지하게 되었다.

①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다.
② 예전'의 '돝'은 '도야지'의 하의어로, 의미가 더 한정적이다.
③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내는 개념은 다르다.
④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⑤ '예전'의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사용된다.

A163

201906평가원12

윗글의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 적용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학생 1은 할머니 휴대 전화에 번호를 저장해 드리면서 할머니의 첫 번째, 네 번째 사위는 각각 '맏사위', '막냇사위'라고 입력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위를 구별하여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 '둘째 사위', '셋째 사위'라고 입력하였다.

ㄴ. 학생 2는 '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꿩의 하의어로 수꿩에 해당하는 '장끼'와 암꿩에 해당하는 '까투리'는 알고 있었지만, 꿩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를 몰라 국어사전에서 고유어 '꺼병이'를 찾아 사용하였다.

ㄷ. 학생 3은 태양계의 행성을 가리키는 어휘 체계인 '수성-금성-지구-화성…'을 조사하면서 '금성'의 고유어로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있음을 알았는데, '개밥바라기'라는 단어는 생소하여 '샛별'만을 기록하였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164

201906평가원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 어미나 보조사가 달리 쓰인다.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녀',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뇨'가 쓰인다. 반면,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고'가 쓰인다.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 어미 '-ㄴ다'가 쓰인다. 중세 국어 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이 일후미 (㉠)
  [이 이름이 무엇인가?]
- 네 엇뎨 아니 (㉡)
  [네가 어찌 안 가는가?]
- 그듸ᄂᆞᆫ 보디 (㉢)
  [그대는 보지 않는가?]

㉠ – ㉡ – ㉢

① 므스고 – 가ᄂᆞ뇨 – 아니ᄒᆞᄂᆞᆫ다
② 므스고 – 가ᄂᆞᆫ다 – 아니ᄒᆞᄂᆞᆫ다
③ 므스고 – 가ᄂᆞ뇨 – 아니ᄒᆞᄂᆞ녀
④ 므스가 – 가ᄂᆞᆫ다 – 아니ᄒᆞᄂᆞᆫ다
⑤ 므스가 – 가ᄂᆞ뇨 – 아니ᄒᆞᄂᆞ녀

A165

201906평가원14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풀잎[풀립]
㉡ 읊네[음네]
㉢ 벼훑이[벼훌치]

① ㉠, ㉡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② ㉠,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③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
④ ㉠, ㉢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⑤ ㉠은 'ㄹ'로 인해, ㉢은 모음 'ㅣ'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A166

201906평가원1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갈다[1] 동 〖…을 …으로〗 ②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깎다 동 1 〖…을〗 ③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묻다[1] 동 〖…에〗 ①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물다[2] 동 1 〖…을〗 ②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쓸다[2] 동 〖…을〗 ①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피동문	사동문
㉠	㉡

①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②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였다.
  ㉡: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③ ㉠: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④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⑤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A167

201907사관학교11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음운 현상은 바뀌게 되는 음운, 바뀌어 나온 음운, 일어나는 조건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음운 현상은 음운 수의 변화,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음운 현상 외에 또 다른 음운 현상이 더 적용될 수도 있다.

보기2

'닭 + 만 → [당만]', '잎 + 만 → [임만]', '웃 + 는 → [운:는]', '닦 + 는 → [당는]'은 비음화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명확히 보여 준다. 또한 비음화 외에 또 다른 음운 현상이 더 적용된다.

① 비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ㅁ, ㄴ 앞'이다.
② 비음화에 의해 바뀌게 되는 음운은 'ㅂ, ㄷ, ㄱ'이다.
③ 비음화는 조음 방법은 달라지지만 조음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 음운 현상이다.
④ '닭 + 만 → [당만]'의 경우 비음화에 의해 음운의 수가 줄어든 예로 볼 수 있다.
⑤ '국 + 물 → [궁물]'의 경우 안울림소리가 'ㅇ'으로 바뀌므로 비음화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A168

201907사관학교12

〈보기〉의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그녀는 여름 방학이 어서 오기를 기다린다.
㉡ 해군 부대는 함정이 한참 부족했으나 용맹한 자세로 전투에 나섰다.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② ㉠은 명사절을 안고 있지만 ㉡은 인용절을 안고 있다.
③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만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지만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⑤ ㉠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안긴절이 있지만 ㉡에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안긴절이 있다.

A169

201907사관학교13

〈보기〉는 사전 자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실리다 1 동사
【…에】
1 옮겨지기 위하여 탈 것, 수레, 비행기, 짐승의 등 따위에 올려지다. '싣다'의 피동사.
(예) 다음 날 밤 그는 포승을 찬 채 지프차에 실리어 갔다.
2 사람이 어떤 곳을 가기 위하여 차, 배, 비행기 따위의 탈 것에 오르게 되다. '싣다'의 피동사.
3 글, 그림, 사진 따위가 책이나 신문 따위의 출판물에 나오게 되다. '싣다'의 피동사.
(예) 신문에 우리 학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4 기운이 무엇에 품기거나 띠게 되다. '싣다'의 피동사.

실리다 2 동사
【…에 …을】
물체나 사람을 옮기기 위하여 탈 것, 수레, 비행기, 짐승의 등 따위에 올리다. '싣다'의 사동사.
(예) 구급차에 환자를 실려 보내다.

① '실리다 1 ' 1 의 능동사인 '싣다'는 주어 외에도 목적어와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② '실리다 1 ' 4 의 용례로 '눈에 겁이 잔뜩 실려 있다.'를 제시할 수 있다.
③ '실리다 2 '에서 제시된 용례를 주동문으로 만들려면 부사어를 주어로 바꿔야 한다.
④ '실리다 1 '과 '실리다 2 '는 서로 동일한 품사이면서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⑤ '실리다 1 '과 '실리다 2 '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A170~A171

201907사관학교14~15

의미 자질은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최소 성분을 말한다. 의미 자질을 표시할 때는 여러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또는 [−기준]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예컨대 '소녀', '소년',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자질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소녀 : [−남성], [−어른], [+인간]
소년 : [+남성], [−어른], [+인간]
할머니 : [−남성], [+어른], [+인간]
할아버지: [+남성], [+어른], [+인간]

그런데 위 단어들의 공통된 의미 자질, 즉 [+인간]을 표시하고 나면 [+포유류], [+동물] 등의 의미 자질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미 자질은 [+인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포유류], [+동물] 등을 [+인간]의 잉여자질이라 한다.

단어의 의미 자질은 상위어일수록 그 수가 적다. 예컨대 '사람', '남자', '소년'의 의미 자질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사람: [+인간]
남자: [+인간], [+남성]
소년: [+인간], [+남성], [−어른]

한편, 단어의 의미는 변한다. 이는 곧 의미 자질이 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예컨대 15~17세기에 나타나는 '마노라'라는 단어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이르면 '마노라'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여자만을 가리키게 된다. 19세기에는 '마노라' 외에도 '마누라'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다. '마노라'의 의미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마누라'는 '아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마노라'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마누라'라는 단어만 남았다. '마누라'는 '중년이 넘은 아내'를 부를 때 외에 '중년이 넘은 여자'를 낮춰 부를 때도 사용된다.

A170

201907사관학교14

윗글을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각'과 '처녀'의 공통된 의미 자질에는 [−결혼]이 있다.
② '과일'의 의미 자질의 수는 '포도'의 의미 자질의 수보다 적다.
③ '바다'와 '강'의 의미 자질 중의 하나는 [+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수탉'이 [+동물]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면 [+닭]은 잉여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낮'이 [+밝음]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면 '밤'은 [−밝음]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A171

201907사관학교1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15세기의 '마노라'와 달리 18세기의 '마노라'는 [+여자]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② 15세기의 '마노라'와 현대의 '마누라' 모두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③ 18세기의 '마노라'와 19세기의 '마누라' 모두 [+여자]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④ 19세기부터 [+가족]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는 '마누라'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⑤ 19세기의 '마누라'와 현대의 '마누라' 모두 [−아내]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A172

201907경찰대1

〈보기〉의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쓸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인간은 자연의 위대한 힘과 맞설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굴복하면서 살아왔다.
- 대도시의 수도관이 낡고 녹슬어서 녹이 섞이거나, 물이 새는 일이 적지 않다.

① 생략된 조사를 적절하게 보충한다.
② 잘못 쓰인 관형어를 적절하게 수정한다.
③ 연결 어미가 의미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한다.
④ 불필요하게 쓰인 피동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한다.
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를 적절하게 보충한다.

A173

201907경찰대2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3점]

① 이 나무는 밤나무가 <u>아니에요</u>.
② 위조품은 진품을 <u>본따서</u> 만든다.
③ 마당에 핀 장미꽃이 정말 <u>빨갛네</u>.
④ 가을이 오자 들판의 곡식이 <u>누레졌다</u>.
⑤ 하산길은 경사가 <u>가팔라서</u> 무척 위험하다.

A174

201907경찰대3

〈보기〉의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열여섯 → 열녀섣 → [열려섣]
  ㉠ ㉡

① ㉠: 첨가와 교체가 일어난다.
② ㉠: 교체와 축약이 일어난다.
③ ㉠: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④ ㉡: 첨가가 일어난다.
⑤ ㉡: 축약이 일어난다.

A175

201907경찰대4

㉠~㉤의 로마자 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 Baengma ㉠신라 _____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 Hangnyeoul ㉡알약 _____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 haedoji ㉢같이 _____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좋고 joko ㉣놓다 _____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묵호 Mukho ㉤집현전 _____

① ㉠: Silla
② ㉡: allyak
③ ㉢: gachi
④ ㉣: nota
⑤ ㉤: Jipyeonjeon

A176

201907경찰대5

㉠~㉢의 형태소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용언의 활용형 '가는'은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 학교에 <u>가는</u> 학생 (등교하는)
㉡ 칼을 <u>가는</u> 사람 (연마하는)
㉢ 손목이 <u>가는</u> 사람 (얇은)

① ㉠: 갈-+-는
② ㉡: 가늘-+-는
③ ㉡: 갈-+-는
④ ㉢: 가-+-는
⑤ ㉢: 갈-+-는

A177

201907경찰대6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에서 접미사 '-적(的)'이 결합한 말은 명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 명사: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시장보다 값이 비싸다.
- 관형사: 일방적 의견만 제시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다.
- 부사: ㉠_____

① 이번 일은 비교적 쉽다.
② 이런 태도는 비상식적이다.
③ 이 제품은 기술적 결함이 있다.
④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
⑤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자.

A178

201907경찰대7

밑줄 친 말이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조사나 어미 가운데에는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환경에 따라 '을'과 '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을'과 '를'을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한다.

① ┌ 학교 앞 공원에서 내일 만나자.
  └ 봄이 오니 거리에 꽃이 가득하다.
② ┌ 친구로서 간곡하게 부탁한다.
  └ 이것으로써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③ ┌ 젊은이여, 내일의 희망을 간직하라.
  └ 젊은이여, 내일의 희망을 간직해라.
④ ┌ 심심한데 어디라도 나가 볼까?
  └ 작은 관심이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⑤ ┌ 소풍을 어디로 가니?
  └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A179

201907경찰대8

〈보기〉는 국어사전의 문형 정보와 용례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설득-하다(說得--) 「동사」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다.

【 …을】 ㉠_____
【 …에게 …을】 ㉡_____
【 …에게 -기를】 ㉢_____
【 …에게 -도록】 ㉣_____
【 …에게 -고】 ㉤_____

① ㉠: 경찰은 용의자를 설득하여 자수하게 했다.
② ㉡: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낼 것을 설득하였다.
③ ㉢: 경찰은 범인에게 투항하기를 설득하였다.
④ ㉣: 나는 동생에게 누나를 설득하도록 했지만 소용없었다.
⑤ ㉤: 나는 두 사람에게 그만 화해하라고 설득하였다.

A180

201907경찰대9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사업에서 손을 뗀 지 이미 오래다.
(→ 그만두다)
② 그런 이상한 말은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들어본다.
(→ 어른이 되다)
③ 내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 근근이 살아가다)
④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다.
(→ 죽어 땅에 묻히다)
⑤ 선생은 '독립'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한다.
(→ 잊지 않고 기억하다)

A181

201907경찰대1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에서 청유형 어미가 쓰이면 화자와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함께 수행한다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화자나 청자 단독으로 행동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행동 수행 주체 청유형 어미	화자, 청자	화자 단독	청자 단독
-자	㉠		㉡
-ㅂ시다		㉢	㉣
-세		㉤	

① ㉠: (회의를 끝내며) 이 문제는 내일 다시 논의하자.
② ㉡: (아기에게 밥을 먹이며) 아기야, 밥 먹자.
③ ㉢: (도서관에서 떠드는 사람에게) 거, 조용히 좀 합시다.
④ ㉣: (길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길 좀 비킵시다.
⑤ ㉤: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나, 그 책 좀 보세.

A182

201907경찰대11

〈보기〉의 대화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須達이* 닐오ᄃᆡ 니ᄅᆞ샨 양ᄋᆞ로 호리이다
㉡ 太子ㅣ 닐오ᄃᆡ 내 롱담ᄒᆞ다라
㉢ 須達이 닐오ᄃᆡ 太子ㅅ 法은 거즛마ᄅᆞᆯ 아니 ᄒᆞ시ᄂᆞᆫ 거시니

* 須達(수달): 사람 이름

① ㉠: '호리이다'에는 선어말 어미 '-오-'가 들어 있겠군.
② ㉡: '내 롱담ᄒᆞ다라'를 보니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로군.
③ ㉡: '太子ㅣ'가 주어인 걸 보니 'ㅣ'는 주격 조사이겠군.
④ ㉢: '太子ㅅ 法'은 '法'이 무정물이므로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군.
⑤ ㉢: '아니'가 부사로 쓰이고 있군.

A183

201907경찰대12

㉠이 적용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국어에서 ㉠동일 모음 탈락은 '가-+-아 → 가', '만나-+-아 → 만나', '건너-+-어 → 건너'와 같이 어간의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동일할 때 나타난다.

① 많이 자도 졸리다.
②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③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한다.
④ 여기 서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렴.
⑤ 애들아, 밤이 너무 늦었으니 어서 자.

A184

2019907인천11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담장이 낮다. → 동네 사람들이 담장을 낮춘다.
㉡ 아이가 옷을 입었다.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었다.
㉢ 사람들이 방으로 이삿짐을 옮긴다.
㉣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 읽게 하셨다].
㉤ ㄱ 아기가 웃는다. → 아빠가 아기를 웃긴다.
ㄴ 철수가 짐을 졌다. → 형이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

① ㉠: 형용사에 사동 접사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되었군.
② ㉡: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지는군.
③ ㉢: 사동문 중에는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군.
④ ㉣: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의 의미로,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되는군.
⑤ ㉤: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군.

A185

2019907인천12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에서 'ㄴ'과 'ㄹ'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ㄹ'과 'ㄴ'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ㄴ'과 'ㄹ'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	㉡
①	산란기	표현력
②	줄넘기	입원료
③	결단력	생산량
④	의견란	향신료
⑤	대관령	물난리

A188

2019907인천15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한[01] 관형사

1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2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3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4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한[02] 명사

1 ('-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는 한이 있어도'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무릅써야 할 극단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
2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

보기2

결승점을 ㉠ 한 200미터 앞두고 달리고 있다. ㉡ 한 이불을 덮고 자며 훈련했던 동료 선수들의 응원 속에 나는 온 힘을 다해 ㉢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쓰러지는 ㉣ 한이 있더라도 힘이 남아 있는 ㉤ 한 포기는 하지 말라고 외치던 ㉥ 한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힘을 낸다.

① ㉠은 '한[01]4'의 뜻으로, ㉡은 '한[01]3'의 뜻으로 쓰였겠군.
②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과 ㉤의 품사는 모두 관형사이겠군.
③ ㉡과 ㉣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④ ㉢의 '한'은 '한[01]1'의 의미를 가지므로 '한∨걸음'으로 띄어 써야겠군.
⑤ '옛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의 '한'은 ㉥과 같은 의미로 쓰였겠군.

A186~A187

201907인천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때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뒤에 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에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씻다'처럼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쓰다'처럼 활용할 때 기본 형태가 달라진다 해도 그 현상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반면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불규칙적으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싣다'와 같은 'ㄷ' 불규칙, '젓다'와 같은 'ㅅ' 불규칙, '돕다'와 같은 'ㅂ' 불규칙, '푸다'와 같은 '우' 불규칙처럼 어간이 바뀌는 경우, '하다'와 같은 '여' 불규칙처럼 어미가 바뀌는 경우, '파랗다'와 같은 'ㅎ' 불규칙처럼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중세 국어 용언의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쓰다'가 '써'처럼 활용하는 'ㅡ' 탈락이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ㅡ' 탈락에 대응한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 '싣다'의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싣-',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실-'로 교체되는 현상은 현대 국어의 'ㄷ'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돕다'와 '젓다' 역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돌-'과 '젇-'으로 교체된다. 이러한 교체는 'ㅸ'이 'ㅏ' 또는 'ㅓ' 앞에서 반모음 'ㅗ/ㅜ[w]'로 변화하거나 'ㆍ' 또는 'ㅡ'와 결합하여 'ㅗ' 또는 'ㅜ'로 바뀌어 현대 국어에서 'ㅂ'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ㅿ'은 소실되어 현대 국어에서 'ㅅ'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간이거나 어간의 일부인 'ᄒᆞ-'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가 '-아'가 아닌 '-야'로 나타나는 것은 현대 국어의 '여'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A186

201907인천13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용언의 활용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탐구 과제]

다음 자료를 보고, 용언의 활용 양상을 탐구해 보자.

[탐구 자료]

따르다 : 따르-+-고 → 따르고 / 따르-+-어 → 따라
푸르다 : 푸르-+-고 → 푸르고 / 푸르-+-어 → 푸르러
묻다[問] : 묻-+-고 → 묻고 / 묻-+-어 → 물어
묻다[埋] : 묻-+-고 → 묻고 / 묻-+-어 → 묻어

[탐구 결과]

'따르다'는 (㉠)처럼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규칙 활용을 하는 반면, '푸르다'는 (㉡)에서 '따르다'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 또한 '묻다[問]'는 (㉢)에서 '묻다[埋]'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

	㉠	㉡	㉢
①	잠그다	어간	어미
②	다다르다	어간	어미
③	부르다	어미	어간
④	들르다	어미	어간
⑤	머무르다	어미	어간

A187

201907인천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중세 국어	(나) 현대 국어
• 부텻 德을 놀애 지석	• 부처의 덕(德)을 노래로 지어
• 人生 즐거ᄫᅳᆫ ᄠᅳ디	• 인생(人生) 즐거운 뜻이
• 一方이 변ᄒᆞ야	• 일방(一方)이 변하여

① (가)의 '지석'는 '짓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짇-'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② (가)의 '즐거ᄫᅳᆫ'은 '즐겁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즐겋-'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③ (가)의 '지석'가 (나)에서 '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ㅿ'이 소실된 결과이군.
④ (가)의 '즐거ᄫᅳᆫ'이 (나)에서 '즐거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ㅸ'이 탈락한 결과이군.
⑤ (가)의 '변ᄒᆞ야'와 (나)의 '변하여'는 모두 활용을 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진 것이군.

A189~A190

201909평가원11~12

(1) 영수는 서울에서 / 서울에 산다.
(2) 민수는 방에서 / *방에 공부하고 있다.
(3)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열었다.

(1)에서는 '에'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서'를 주격 조사로 쓸 수 있을까?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2)에서 '방에'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셔'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애/에/예, 이/의'와 '이시다(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애/에/예, 이/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애/에/예, 이/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중세 국어에서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과 같은 예에서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부사격 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붙은 '께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께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쇠셔' 역시 '쇠'와 '셔'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 조사로 변화 하여 현대 국어의 '께서'로 이어졌다. 중세 국어의 '에셔',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쇠셔',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A189

201909평가원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②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③ 중세 국어의 '애/에/예'는 '이/의'와 달리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④ 현대 국어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셔'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⑤ 중세 국어 '에셔'가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셔' 앞에 유정 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A190

201909평가원12

보기

- **현대 국어의 예**
  - ㉠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 ㉡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 **중세 국어의 예**
  - ㉣ 一物이라도 그위예셔 다 아ᄉᆞᄫᆞᆯ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 ㉤ 부텨ᄭᅴ셔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

① ㉠: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② ㉡: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③ ㉢: 높임의 유정 명사인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었군.
④ ㉣: '그위예셔'는 '그위'에 주격 조사 '예셔'가 붙었군.
⑤ ㉤: 높임의 유정 명사인 '부텨'에 부사격 조사 '쇠셔'가 붙었군.

A191

201909평가원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아래 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예	찰흙이	안팎을	넋이	끝을	숲에
부정확한 발음	[찰흐기]	[안파글]	[너기]	[끄츨]	[수베]
↓	↓	↓	↓	↓	↓
정확한 발음	[찰흘기]	[안파끌]	[넉씨]	[끄틀]	[수페]

다 봤나요? 그럼 정확한 발음을 참고하여,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 볼까요?

학생 : ㉠

선생님 : 네, 맞아요,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세요.

①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하는데, [찰흐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했습니다.

② '안팎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안파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③ '넋이'는 연음을 하고 된소리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너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④ '끝을'은 연음을 하고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끄츨]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⑤ '숲에'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수베]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A192

201909평가원14

〈보기〉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말을 파생어라 한다.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 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 되므로 합성어이다.

① 밤새 거센 비바람이 내리쳤다.

②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③ 차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헛돌았다.

④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

⑤ 그들은 끊임없이 짓밟혀도 굴하지 않았다.

A193

201909평가원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습 활동]

겹문장은 홑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홑문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겹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료>	<조건>
• 날씨가 춥다. • 형은 물을 마셨다. •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 형은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① ㉠: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② ㉡: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③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④ ㉣: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⑤ ㉤: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문제·정답해설의 출처·저작권

-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11월 수능 : 평가원, EBS
- 3월 서울, 4월 경기, 5월 전북, 7월 인천, 8월 전북, 10월 서울, 11월 전북, 11월 대구 등 : 각 교육청
- 7월 사관학교 · 경찰대 : 사관학교, 경찰대

편집정보

- 업로드 한 곳 : http://cafe.daum.net/dulsai/
- 재편집자 : 샤랄랄라라라(문제, 정답해설), 구레나룻(정답해설)
- V2019.09.05.193